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발행처 외교부(문화외교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국제협력팀)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ISBN 978-89-94307-75-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IR 2017 RP 1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보고서

목차

I. 회의 개요

1. 회의명, 기간 및 장소	6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6
3. 의제 목록	7
4. 회의 구성 및 일정	9
5. 종합 관찰	13

II. 본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14
2. 회의 결과	15

III. 분과회의 결과 보고

1. 교육 분과회의	21
2. 자연과학 분과회의	28
3.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	36
4. 문화 분과회의	46
5.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53
6.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 분과회의	60
7. 법률위원회	75

IV. 주요 선거 결과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85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86

V.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 제4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90
2. 교육 2030 고위급 회의	100
3. 유니트윈/유네스코석좌 25주년 기념 회의	106
4.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역량 장관급 행사	108

V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 참가 목적	111
2. 대표단 명단	111
3. 주요 활동	113

VII. 참고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114
2. 관련 기사	118
3. 사진 자료	120

I / 회의 개요

1. 회의명, 기간 및 장소

▣ **회의명** : 제39차 유네스코 총회(The 39th Session of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 **기간** : 2017년 10월 30일(월)~11월 14일(화), 총 16일간

※ 제4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2017년 10월 27일(금)

▣ **장소** :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2. 참가대상 및 주요 인사

▣ 참가대상

- 195개 정회원국 및 10개 준회원국 대표단
-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비회원국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 리더스 포럼 참가 주요 인사

- Ms Zohour Alaoui 39차 유네스코 총회 의장
- S. Exc. M. Olivier Solonandrasana Mahafaly 마다가스카르 수상
- Miroslav Lajčák 제72차 유엔 총회 의장
- H. Exc. Bakir Izetbegovic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직 위원
- M. Mohammad Sarwar Danish 아프가니스탄 부통령
- Henry Puna 쿡 아일랜드 총리
- Boil Banov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
- Ibrahim Boubacar Keïta 말리 대통령
- Lech Walesa 전 폴란드 대통령(1983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

3. 의제 목록

의제번호	의제 제목
1.1	제38차 총회 의장의 개회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 보고
1.3	유네스코 현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4	의제 채택
1.5	의장단 선출
1.6	총회 업무 구성
1.7	비공식관계에 있는 NGO의 총회 옵서버 승인
2.1	2014-2015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2.2	사업과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집행이사회 보고
3.1	예산 수립 방법 및 기술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3.3	2018-2019 지출 결의안 채택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4.1	2018-2019 회원국 제안 유네스코 기념일
4.2	예루살렘과 제38차 총회 결의안 52 이행
4.3	점령된 아랍 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8차 총회 결의안 72 이행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4.5	청년포럼 결과
4.6	세계 빛의 날 선포
4.7	2015년 이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에 대한 보고
4.8	유네스코의 SDG 4-교육 2030 이행 역할
4.9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
4.10	현대사회에서 소리의 중요성: 우수사례 증진
4.11	전환의 시기를 위한 과제와 책임: 세계 인문학 대회
4.12	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 강화 전략
4.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4.14	문화 분야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4.15	제6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급 국제회의(MINEPS VI) 후속 활동
4.16	인도 오로빌과 유네스코 협력
4.17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4.18	퀘벡행동계획: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의제번호	의제 제목
4.19	2019 세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4.20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행동계획 이행 관련 유네스코 리더십 강화
4.21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에콰도르 남미 고등커뮤니케이션 연구 국제센터)
5.1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5.2	조직의 지역 활동 이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6.1	고등교육 자격 인증에 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6.2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초안
6.3	공개교육자원(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마련
7.1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7.2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7.3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7.4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7.5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7.6	1974년 라틴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증 협약 수정 초안
8.1	운영기구(governing body)를 포함한 회원국과 NGOs간 질적 대화 제안
8.2	참여프로그램(PP) 및 긴급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원칙, 조건, 규칙
8.3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8.4	뉴칼레도니아 준회원국 가입
9.1	2016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9.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9.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9.4	유네스코 운영기금(Working Capital Fund)
10.1	직원 규정 및 규칙
10.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10.3	유엔공동직원연금기금 운영 보고 및 유네스코 직원 연금 위원회 회원국 신규 임명
10.4	의료혜택기금(MBF)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0.5	의료혜택기금(MBF) 감사보고서
10.6	2017-2011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12.1	사무총장 임명
14.1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장소

4. 회의 구성 및 일정

▣ 본회의(Plenary Meeting)

- **개회식**: 2017년 10월 30일(월)
- **폐회식**: 2017년 11월 14일(화)
- **일반정책토론(General Policy Debate)**: 2017년 11월 1일(수)~6일(월)
- **리더스 포럼(Leader's Forum)**: 2017년 10월 31일(화)~11월 1일(수)
- **유네스코 사무총장 일반정책토론 답변**: 2017년 11월 6일(월)
- **신임 사무총장 임명**: 2017년 11월 10일(금)
- **주요 내용**: 재정 위기 하 거버넌스 개혁,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등 유네스코의 노력 소개, 뉴칼레도니아 유네스코 준회원국 가입, 신임 의장 및 분과회의 의장 등 의장단 구성, SDGs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확인하고, 각 회원국별 SDGs 이행을 위한 성과 소개,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 유네스코의 역할에 대한 성찰 등
- **논의 의제**
 - 1.1 제38차 총회 의장의 개회
 - 1.2 신임장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 보고
 - 1.4 의제 채택
 - 1.7 비공식관계에 있는 NGO의 총회 옵서버 승인
 - 8.4 뉴칼레도니아 준회원국 가입
 - 4.5 청년포럼 결과
 - 1.5 의장단 선출
 - 2.1 2014-2015년도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교육 분과회의(ED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1일(수)~4일(토)
- **주요 내용** :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등 10개의 의제 논의, 대다수 회원국이 SDG 4-교육 2030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지지
- **논의 의제**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4.8 유네스코의 SDG 4-교육 2030 이행 역할
 - 4.3 점령된 아랍 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8차 총회 결의안 72 이행
 - 7.1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2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5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4.5 청년포럼 결과
- 6.1 고등교육 자격 인증에 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 7.6 1974년 라틴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증 협약 수정 초안
-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자연과학 분과회의(SC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6일(월)~7일(화)
- **주요 내용** : 자연과학 및 IOC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을 비롯,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학 10개년(2021-2030),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등 의제 논의
- **논의 의제**
 - 4.5 청년포럼 결과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4.9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
 - 4.6 세계 빛의 날 선포
 - 4.19 2019 세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 3.2 IOC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 4.4 IOC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4.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SHS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7일(수)~9일(목)
- **주요 내용** : 인문사회과학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승인,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규정 개정, 과학연구자 지위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등 관련 의제 논의
- **논의 의제**
 - 4.5 청년포럼 결과
 - 3.2 인문사회과학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4.11 전환의 시기를 위한 과제와 책임: 세계 인문학 대회
 -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4.17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 7.3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4.15 제6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급 국제회의(MINEPS VI) 후속 활동
- 4.16 인도 오로빌과 유네스코 협력
- 6.2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초안
- 7.4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 문화 분과회의(CLT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8일(수)~9일(목)
- **주요 내용** : 문화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및 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강화전략 등 관련 의제 논의
- **논의 의제**
 - 4.5 청년포럼 결과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4.12 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 강화 전략
 -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4.2 예루살렘과 제38차 총회 결의안 52 이행
 - 4.14 문화 분야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CI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6일(월)~7일(화)
- **주요 내용** : 정보·커뮤니케이션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2015년 이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에 대한 보고, 퀘벡선언: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설정 등 관련 의제 논의
- **논의 의제**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4.18 퀘벡행동계획: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4.21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에콰도르 남미 고등커뮤니케이션 연구 국제센터)
 - 4.7 2015년 이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에 대한 보고
 - 6.3 공개교육자원(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마련
 - 4.20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행동계획 이행 관련 유네스코 리더십 강화
 - 4.5 청년포럼 결과

▣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APX Commission)

- 기간 : 2017년 11월 1일(수)~4일(토)
- 주요 내용 : 예산 상한 및 지출 계획 승인, 거버넌스 개혁 및 인사 등 관련 의제 논의
- 논의 의제
 - 1.3 유네스코 현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5.2 조직의 지역 활동 이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 4.10 현대사회에서 소리의 중요성: 우수사례 증진
 - 10.3 유엔공동직원연금기금 운영 보고 및 유네스코 직원 연금 위원회 회원국 신규 임명
 - 10.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 10.6 2017-2011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 9.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 9.4 유네스코 운영기금(Working Capital Fund)
 -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5.1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 9.1 2016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 10.5 의료혜택기금(MBF) 감사보고서
 - 8.2 참여프로그램(PP) 및 긴급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원칙, 조건, 규칙
 - 8.1 운영기구(governing body)를 포함한 회원국과 NGOs간 질적 대화 제안
 - 4.1 2018-2019 회원국 제안 유네스코 기념일
 - 8.3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 10.1 직원 규정 및 규칙
 - 3.1 예산 수립 방법 및 기술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9.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 법률위원회 회의(Legal Committee)

- 기간 : 2017년 10월 31일(수)~11월 1일(목), 11월 6일(월)~7일(화)
- 주요 내용 : 4개 권고 종합보고 검토, 권고 및 개정안 상세 검토 및 거버넌스 의제 등 관련 법률 검토
- 논의 의제
 -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7.1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2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5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3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7.4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 8.3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 4.17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 5.1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 리더스 포럼(Leader's Forum)

- 기간 : 2017년 10월 31일(화)~11월 1일(수)
- 참가대상 : 국가원수, 장관급 정부대표 등
- 주제 : 다자체제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네스코의 역할(SDGs and UNESCO's Role in the Multilateral System)

5. 종합 관찰

- 세계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단주의와 폭력, 갈등과 환경 문제 등의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대부분의 회원국이 SDGs 및 교육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유네스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함.
- 10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발표 이후 유네스코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고 이번 총회에서 미국 탈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회원국도 있었지만, 이미 미국은 2011년부터 분담금을 미납해 재정적 타격을 줬던 만큼 이번 탈퇴 자체가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분위기도 함께 목격할 수 있었음.
- 신임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 임명되면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대를 표하며 강도 높은 조직 개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이번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은 통합예산체계(Integrated Budget Framework)를 적용한 첫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서, 비정규예산 파악 및 자원 확보 전략 수립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평을 받았으며, 사무국에서는 이후 구조적 재정 대화(Structured Financing Dialogue)를 통해 투명성 확보, 비정규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됨.

Ⅱ 본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개회식 : 2017년 10월 30일(월)
- 일반정책토론 : 2017년 11월 1일(수)~4일(토)
- 리더스포럼 : 2017년 10월 31일(화)~11월 1일(수)
- 사무총장 답변 : 2017년 11월 6일(월)
- 신임 사무총장 임명 : 2017년 11월 10일(금)
- 본회의 보고 : 2017년 11월 11일(토)~14일(화)
- 폐회식 : 2017년 11월 14일(화)

▣ 요지

-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 및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은 재정 위기 하 거버넌스 개혁, SDGs 이행 등 유네스코의 노력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관심 환기 및 분담금 납부를 요청함. 뉴칼레도니아가 준회원국으로 유네스코에 가입함.
- 이어 정회원국, 준회원국, 기타 유엔 전문기구 및 NGO 대표들의 연설로 이뤄진 일반정책토론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활동과 업적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기대를 표명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유네스코가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여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화하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것을 주문했으며,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자국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특히 △교육 분야 목표(SDG 4) 이행 상황 △문화유산 및 문화다양성 보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인 보호 등을 언급.
- 11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신임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 임명됨.

2. 회의 결과

▣ 제38차 총회 개회

- 스탠리 무툼바 시마타(Stanley Mutumba Simataa) 제38차 총회 의장은 유네스코가 SDGs 이행이라는 핵심적 역할에 반해 여전히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바, 비정규 예산 증대 등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조직의 정치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유네스코의 평화의 정신이 요구됨에 주목함.
 - 아울러 유네스코의 근본 이념에 충실한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며, 일부 회원국이 정치적 이유로 정규분담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함.
-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극단주의 확산 등 유네스코 정신에 대한 도전 과제가 산재한 가운데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다자적 협력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특히 언론인 안전, 평생교육 확산, 문화유산 파괴 대응, 문화와 발전 등에 대한 유네스코의 노력을 소개함.

▣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일반정책토론 소개

-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세계유산, 청년 활동 등을 통한 문화 간 대화, 문화다양성 증진 성과를 공유함. 유네스코는 유엔 조직 중 유일하게 역사와 기억을 다루는 곳임을 강조하며, 최근 아쉽게도 탈퇴를 결정한 미국도 그 여정을 함께 했음을 밝힘. 특히 기록유산, 역사교육 등 유네스코의 여러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하였음을 소개.
-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분쟁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활동, 창의도시 프로그램 확대, 언론인 안전 문제 등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며, 유엔기구 및 지역기구 협력 확대, 국가위원회, NGO 협력 강화, 기업 및 민간협력을 통한 모금 등의 성과를 공유함.
- 아울러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곳곳을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
- 세계교육포럼(인천) 개최를 계기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사하라지역 ICT 교육(중국 지원), 글로벌 직업교육(TIVET)(독일 지원), 소녀교육, 교육자 지원(한국 지원) 등에 힘쓰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 및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한 'Unite4Heritage 캠페인' 전개 등 유네스코의 다양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힘써왔음을 강조함.

▣ 한국 수석대표 일반정책토론 연설 주요 내용

-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현재 유네스코가 처한 제도적, 재정적 도전 상황은 분명 위기라 할 수 있지만, 더 강한 유네스코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금

번 총회를 통해 채택하게 될 향후 4년간 프로그램 및 예산(39 C/5)과 신입 사무총장 선출은 유네스코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유네스코의 도약을 위해서는 회원국들도 분담금 납부와 같은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유네스코로서도 매력적인 글로벌 파트너가 되기 위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였음을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발적 기여 규모는 5배나 증가했고, 교육, 과학, 문화,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對유네스코 기여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제주에서 ‘제12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함.

▣ 주요국 대표 일반정책토론 연설 요지

- **일본:** 일본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DGs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 간 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함. 유네스코 사업으로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학과 물 과학 분야 간 협력, MAB와 지질공원 사업 등이 중요하며, 각 사업들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긴요함. 유네스코의 설립 목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상호이해가 중요하며, 그 동안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프로그램이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 왔고, 기록유산(MoW) 프로그램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지난 추계 집행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MoW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토 결정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 동 검토과정에 참여할 것임.
- **중국:** 유네스코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 사의를 표함. 상호연결 및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유네스코는 회원국간 신뢰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새로운 관점과 전략, 해법을 제시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며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으로, 중국은 양성평등 교육, 2030 교육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연계하여 People-to-People 교류 증진, 문명 간 공존을 촉진함으로써 문명간 충돌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언어자원 및 기록유산 보호를 위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중국은 현대사회 건설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돌입하고 있는 바, 상호 존중, 정의, 윈윈 협력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분야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재확인하는 바임.

- **미국**: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2일 정부 공식성명을 통해 유네스코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실용적, 정책적 토대 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음. 탈퇴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으로 국내법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중단, 그 결과 체납금이 5억5천만불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와 관련하여 집행이사회, 세계유산위원회 등 주요 회의를 이용한 정치화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네스코 운영에 있어 투명성 결여와 거버넌스 문제 등을 고려했으며, 최근 결정된 거버넌스 방향은 조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한편, 보코바 사무총장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업적과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도전적 상황이지만 하겠지만 지명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기대함. 미국이 비록 탈퇴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현 상황에 있어 중요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PVE), 디지털 문해율 제고 등을 위해 양자 혹은 지역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인도주의적 지원, 지진/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통한 재난 방지활동, 1970년 협약(문화재 불법거래 방지 협약) 관련 활동, 양성평등 증진,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을 위해 아직은 회원국으로, 이후에는 옵서버로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할 것임.
- **러시아**: 지금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임무는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를 강화하는 것”임. 유네스코는 재건(renewal)의 시점에서 있으며, 회원국들은 유네스코가 본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의제 이행에 있어 유엔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원은 회원국이 하나가 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바, 자국의 당면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유네스코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분담금도 적시에 납부하는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외국인 혐오, 무관용, 차별 등에 대처함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자연과학 또한 유네스코의 중요 임무이자 활동의 하나로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함.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함.
- **북한**(※한국어로 발언함): 자국에서 달성한 SDGs 성과를 언급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미국의 주권 침해, 내정 간섭, 적대시 정책, 노골적 협박으로 인해 자국과 한반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가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함. 아울러 파리 협정에 이어 유네스코를 탈퇴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유네스코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함.
- 레소토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말라위는 한국 교육부의 BEAR 프로그램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한국의 교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함.

▣ 유네스코 사무총장 답변

- 보코바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의지 및 약속에 사의를 표하고, 유네스코가 앞으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유하면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영감을 제공하고, 세계유산, 지식사회, 창의도시 네트워크, 글로벌 시민 등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편견, 인종 및 종교차별,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등으로 인한 충돌과 이에 따른 무고한 희생자 발생을 비난하며, 과거 르완다 제노사이드처럼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로힝아족에 대한 탄압에 우려를 표함.
- 보코바 사무총장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사람’,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함. 많은 회원국들이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의 연구, 지식 공유, 지식 경제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음에 주목하고, 또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인 인간의 창조성(human creativity)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기후변화, 급격한 사회변화 등 전 세계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해법이 아닌 문제들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함. 또한, 전 지구적 도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앞서 생각하며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주요국 대표 리더스 포럼 연설 요지

- Miroslav Lajčák 제72차 유엔 총회 의장은 상호의존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SDGs와 파리 기후변화협약(COP 21) 체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테러리즘을 비롯한 국제 정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다자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자체제의 확장을 위한 유네스코의 핵심적 역할, 특히 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해 △평화 구축 △물과 지속가능발전 △청년과 교육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기후변화 대응 △발전을 위한 자원 확보 △안전한 이주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언급함
- Ibrahim Boubacar Keita 말리 대통령은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의 위협이 상존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재 말리가 사헬지역의 안보를 위해 인근 5개국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함. 또한, 평화를 위해서는 문화 간 이해 및 대화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특히 내전으로 손상된 팀북투 지역의 세계유산 복구에 유네스코 및 국제사회가 보여준 유대감(solidarity)에 깊은 사의를 표함.

※ 이후 말리에서는 임기가 종료되는 보코바 사무총장을 위한 헌정 공연을 20분간 개최함

- Mohammad Sarwar Danish 아프가니스탄 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국의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 회원국들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특히 세계유산보호에 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자연유산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를 포함하여 여러 회원국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함.
- Olivier Solonandrasana Mahafaly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유네스코 활동 전반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교육을 통한 청년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와 개발 맥락에서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함.
- Henry Puna 쿡제도 총리는 S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전진하는 상황’에 비유하며, 특히 SDGs 전반을 관통하는 유네스코의 이념과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함. 또한 유네스코가 파트너십의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 회원국 및 다른 다자기구와 정기적인 대화 및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과 각 이해관계자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할 것 등을 제안함.
- Lech Walesa 전 폴란드 대통령(노벨평화상 수상자)은 국가 간 보호주의의 장벽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의 혁명적인 발달로 정보의 이동이 매우 유연해진 오늘날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토대(foundation)가 필요함을 역설함. 새로운 토대는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합의된 가치와 자유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하며,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은 공동의 이해 증진과 대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힘. 연대, 존중, 관용, 인간 중심의 가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개념화가 가능하지만, 세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함을 강조함. 유네스코는 공동의 기반과 공동의 정신을 고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함을 밝힘. 이를 위해 낡은 시대와 낡은 조직, 낡은 수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강조함.

□ 신임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 연설

- 아줄레 사무총장은 유네스코가 직면한 재정위기, 정치적 충돌, 지구촌 이슈를 둘러싼 유네스코의 활동과 한계를 두루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유네스코의 임무에 충실하고, 이를 지지해야 할 때임을 강조함.
- 첫 번째 임기 중에는 아프리카와 여성문제에 우위를 둘 계획이라고 밝히며,
- 최근 정치적, 재정적 난관 속에 회원국의 협력 및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고, 회원국 및 기타 거버넌스 기관 간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함.
※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의장단 선출

- **의장** : H.E. Mrs Zohour Alaoui(모로코)
- **부의장** : 33개국
- **분과회의 의장**
 - 교육 분과회의(ED) : H. E. Mr George Imbanga Godia(케냐)
 - 자연과학 분과회의(SC) : H. E. Mr Mustafa El Tayeb(수단)
 -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SHS) : H. E. Mr Milan Konvit(슬로바키아)
 - 문화 분과회의(CLT) : H. E. Mrs Vincenza Lomonaco(이탈리아)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CI) : H. E. Mr Martin Hadlow(호주)
 -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APX) : H. E. Ms Lorena Sol de Pool(엘살바도르)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H. E. Mr Pierre Michel Eisemann(프랑스)

▣ 준회원국 가입

- 회원국들은 뉴칼레도니아의 준회원국 가입을 승인함

▣ 관찰과 평가

- 총회 의장 및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등은 공통적으로 유네스코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여러 개혁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 의무 수행을 촉구. 그러한 가운데 특히 미국의 탈퇴에 대한 깊은 유감 표시와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지연한 국가들에 대한 행동 촉구가 주목할 만함.
- 일반정책토론에서는 SDGs 및 교육 2030 의제, 극단주의, 언론인 안전, 문화유산 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유네스코 근본정신인 평화의 문화 구축이 더욱 강조되었음.
- 유럽 지역 회원국은 주로 유엔 시스템 내에서 유네스코 본연의 가치·기능·역할 회복을 주문하고 현재의 위기 해소를 위한 회원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주로 △보편적인 양질의 교육 제공 △성평등 증진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언론인 보호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고, 다수의 개도국 정부는 주로 SDGs 달성을 위한 자국 내 정책 및 관련 활동 소개에 집중하며, 국가 시스템 강화에 대한 유네스코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함.
- 회원국들은 △과도한 정치화 △분담금 미납 △불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유네스코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지 못하고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표명.
- 리더스 포럼에서도 유네스코가 처한 현실에 대한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은 전반적으로 유사했으나,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지도자들의 현실적 비전과 구상을 관찰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

III / 분과회의의 결과 보고

1. 교육 분과회의(ED Commission)

▣ 회의 기간 및 장소

- 2017년 11월 2일(목)~3일(금) 10: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2017년 11월 4일(토)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요지

- 교육 분과회의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II)에서 5차례 진행되었으며,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준비 등 10개의 의제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39C/5가 SDG 4-교육 2030 목표 성과 달성에 연계하여 구성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SDG 4-교육 2030 이행에 있어 유네스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지지함.
- SDG 4-교육 2030 이행에 있어서 △모니터링 매커니즘 수립과 이행의 중요성 △각국 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에 연계 △섹터간 연계 및 협력 △정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성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한 애드보커시 △GCED, ESD, 문해, TVET, 교사훈련 등의 지속적 우선순위 △역량강화 및 정책조정 등에 대해서 강조함
- 사무국은 △교육 2030 이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유네스코는 규범 제정 및 프로그램 이행 두 가지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유네스코 교육 섹터의 네트워크 및 협력(유니트윈, 유네스코학교)을 강화하며, 카테고리 II 센터,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모두 강력한 협력기관이며 상호 협력을 요망함.
- 4.3 점령된 아랍 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8차 총회 결의안 72 이행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임. 같은 의제를 논의 예정이었던 문화 분과회의에서는 논의 없이 채택하기로 결정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02일(목)

- 개회 (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교육 사무총장보의 사무총장 대리 발언)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4.8 유네스코의 SDG 4-교육 2030 이행 역할
- 의제 4.3 점령된 아랍 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8차 총회 결의안 72 이행

11월 03일(금)

- 의제 4.3 (계속)
- 의제 7.1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2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5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6.1 고등교육 자격 인증에 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 의제 7.6 1974년 라틴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증 협약 수정 초안

11월 04일(토)

- 의제 6.1 (계속)
- 의제 7.6 (계속)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의장단 선출

- **의장:** H.E. Mr George Imbanga Godia(케냐)
- **부의장**
 - Mr Adnan Boyaci(터키)
 - Ms Luz Amparo Medin Gerena(콜롬비아)
 - Mr Muhammad Baligh-ur-Rehman(파키스탄)
- **보고자:** Mr Mohamed Dali(모로코)

▣ 상세 내용

의제번호	Item 3.2 39C/5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의제번호	Item 4.8 39C/44
의제제목	유네스코의 SDG 4-교육 2030 이행 역할 UNESCO's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 4-Education 2030 Agenda

- 모든 회원국들은 SDG 4-교육 2030 성과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역할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다수의 국가가 Tang 교육사무총장보(ADG/ED)와 직원들의 공헌에 감사를 표함(한국, 독일, 이란과 교육 관련 NGO인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등이 감사 발언).
- 노르웨이,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다수의 회원국은 SDG 4 목표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리딩 역할을 치하하며, 회원국의 SDGs 활동을 소개함.
- 캐나다는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GCED 부대행사를 소개함.
- 스위스와 뉴질랜드는 SDG 4와 관련한 국가위원회의 지원 활동을 소개함.
- 북한은 자국에서 SDG 4의 지속적인 지원과 문해, TVET, 교사 훈련 및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개도국 대상 TVET, 문해교육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유네스코와 여러 지역 사무소의 EFA, TVET, ICT분야에서 협력을 요망하며, 남남협력,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아울러 일본의 북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비판함.
- 일본은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유네스코의 회원국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SDG 4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등 글로벌 수준에서 참여 및 이행 노력과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유네스코 사무소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힘. 이와 함께 일본의 지속적인 ESD 지원을 언급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SDG 4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공헌과 노력에 감사하고, 특히 교육 사무총장보가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많은 공헌과 노력을 한 것에 사의를 표함. 유네스코는 다른 기구 및 섹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카테고리 II 센터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국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 국가가 국가적 맥락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교재 개발 지원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함. GCED, 문화와 예술교육, TVET, STEM 분야의 지원이 필요함을 밝히고,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강조함. 한국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언급하며, 아프리카가 우선순위가긴 하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구된다고 강조함.
- 필리핀과 엘살바도르는 교육 분야 유네스코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고, 에스토니아, 독일, 과테말라는 SDG 4 이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함.
- 사무국은 유네스코가 교육 섹터의 네트워크 및 협력(유니트윈, 유네스코학교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카테고리 II 센터, 지역사무소, 국가위원회 모두 강력한 협력기관이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이와 함께 규범 제정 및 프로그

램 이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추가적인 재원 동원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밝힘.

- 의제 3.2 39C/5는 수정 없이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의제 4.8 39C/44는 엘살바도르(정책조언, 역량강화 등 기술적 지원 문구 삽입)와 슬로베니아의 제안(human right 추가)에 따라 수정 후 채택됨.

의제번호	Item 4.3 39C/17
의제제목	점령된 아랍 지역 내 교육 및 문화기관 관련 제38차 총회 결의안 72 이행
	Implementation of 38 C/Resolution 72 concerning educational and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occupied Arab territories

※ 동 의제는 3차례 표결이 진행되는 등 회원국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 동 의제를 다음 총회까지 연기하거나 재논의하려는 이스라엘의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랜 논의 끝에 컨센서스로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결정함.

- 이스라엘이 다음 총회까지 동 의제 연기를 제안하며 투표를 제안함.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이스라엘, 미국, 가봉 등 투표권이 없는 13개국을 제외하고 투표가 이뤄졌으며, 찬성 6표, 반대 57표, 기권 58표로 이스라엘의 제안 채택되지 않음.
- 팔레스타인은 동 건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어온 바, 이제는 논의 없이 결정해야 함을 제안. 터키, 알제리, 세네갈, 인도네시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모로코, 쿠웨이트 등이 팔레스타인 의견 지지.
- 이에 이스라엘은 차기 의제로 넘기지 못하면 동 의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투표를 통해 다수의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의견에 반대함으로써 무산됨. 추후 이스라엘에서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다시 제시하며 표결에 부칠 것을 제안했음. 많은 논의 끝에 투표가 이뤄졌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함.
- 정회를 요청한 의장단은 논의 끝에 본 의제가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결론을 지음.

의제번호	7.1 39C/24
의제제목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60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의제번호	7.2 39C/25
의제제목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의제번호	7.5 39C/27
의제제목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8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 사무국(ADG/ED)은 의제 7.2, 7.5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네스코는 동 권고문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힘.
-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다수의 회원국이 유네스코가 교육 분야에서 기준 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치하하며, 본 권고문과 사무국의 종합적인 보고를 환영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1974 권고문은 SDG 4.7 모니터링의 중심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므로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GCED, ESD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또한 PVE, 인권교육, 평화교육은 섹터간 협력이 필요하고, 1974 권고문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안 사례가 공유될 것을 제안함. 1960 협약 이행보고서 관련하여 향후 영유아 교육, 난민 교육 등 SDG 4-교육 2030에서 추구하고 있는 포괄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사무국의 기술적 지원이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데 반가움을 표명함. SDG 4 이행을 위해 향후 사무국은 △다른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 다른 국제기구 및 NGOs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각 회원국에 요청하는 모니터링 설문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더 많은 국가가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함. 이와 함께 1974 권고문은 SDG 4.7을 이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4.7 목표 이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설명.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11,000개에 달하는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를 통해 GCED, ESD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그동안 ESD와 GCED의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올해 발간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1978 개정 관련하여 회원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있으나,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의제 7.1은 결의안 수정 후, 의제 7.2는 수정 없이, 의제 7.5는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수정 후 채택.

의제번호	4.5 39C/19 and 39 C/INF.20
의제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 of the Youth Forum

- 청년포럼 참가자인 Ms Beverly Chogh(케냐), Mr Sardam Sayyaleh(팔레스타인, 요르단 난민)가 결과를 발표함.
- 대부분의 회원국(스웨덴, 노르웨이,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포르투갈)은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며, 청년들이 유네스코 활동에 있어서의 주요 참가자가 되길 바라고, 유네스코가 이를 지원해주길 요청함. 캐나다는 청년을 단순히 참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SDG 4 이행자로서 기대함. 특히, ASPnet을 통해서 변화자로서의 청년 역할 강화를 기대함.
- 사무국(ADG/ED)도 청년의 중요한 역할에 공감함. 모든 회원국 스스로도 청년을 각국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 청년 주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년 네트워크 등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힘. 유네스코의 향후 2년 사업에도 청년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자 하며, 모든 회원국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람.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됨.

의제번호	6.1 39C/21 and 30C/INF.17
의제제목	고등교육 자격 인증에 관한 국제 협약 진행 현황 보고
	Progress report on the preparation of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의제번호	7.6 39C/48
의제제목	1974년 라틴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증 협약 수정 초안
	Preliminary revision of the 1974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1974)

- 사무국(ADG/ED)이 두 의제를 설명함.
- 다수의 회원국은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의 결의안을 지지했으며, 결의안 문구 일부 수정 후 채택함.

의제번호	4.4 39C/19 and 39 C/INF.20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논의 없이 채택됨(설립 승인).
 - Centre for teacher educatio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중국)
 - Associated Schools Project Metwork(ASPnet) International Centre(중국)

의제번호	39 C/REP/1
의제제목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2016-2017 활동 보고 Report by the council of the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on the institute's activities for 2016-2017

- IBE에서 보고함.
- 스위스는 발언을 통해 IBE에 대한 지원을 2018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힘.

■ 관찰과 평가

- 대다수의 국가들이 글로벌 교육의제(SDG 4-교육 2030)를 국가 교육 정책 및 계획에 반영시키는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자연과학 분과회의(SC Commission)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6일(월)~11월 7일(화) 10: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핵심요지

- 자연과학 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분과회의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II)에서 4차례 진행되었으며 △자연과학 및 IOC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2018-202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학 10개년(2021-2030) △2019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세계 빛의 날 선포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IOC 관련 의제가 자연과학 분과회의 안에서 별도의 세션에서 다루어져 자연과학사업과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됨.
- 다수의 회원국들은 39C/5 초안의 자연과학 및 IOC 전략, 프로그램 및 예산안에 대해 SDGs와 연계 강화를 평가하면서 IHP, MAB, IOC 등 정부간 사업에 대한 지지 및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함. 자연과학 분야에서 물안보센터 및 IOC 포함 카테고리 II 센터 7곳의 설립이 승인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6일(월)

- 개회(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자연과학 및 IOC 사무총장보의 사무총장 대리 발언)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의제 4.9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

11월 7일(화)

- 의제 4.9 (계속)
- 의제 4.6 세계 빛의 날 선포
- 의제 4.19 2019 세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 의제 3.2 IOC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의제 4.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Mustafa El Tayeb(수단)
- 부의장 : Ms Elizabeth Silva(포르투갈)
Ms Alejandra De Bellis(우르과이)
Mr Chowdhury Mufad Ahmed(방글라데시)
Mr Tjama Tjivikua(나미비아)
- 보고관 : Mr Slawonir Ratajski(폴란드)

▣ 상세 내용

의제번호	4.5 38C/19
의제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 of the Youth Forum

- 제10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참가자 2인이 자연과학 관련 내용 중심으로 청년포럼 결과 및 권고를 보고함. 물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 및 네트워크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청년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접근과 지식이 부족하기에 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과학에 대한 권고를 제시. F. Schlegel 자연과학 사무총장보는 청년포럼 권고에 사의를 표하고, 연구실행, 시민과학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MAB 청년포럼 및 기후변화포럼 등 자연과학분야 청년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청년과학자네트워크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V. Ryabinin IOC 사무총장보는 세계 해양의 날 등 IOC 활동에 청년들의 참가를 소개함.
-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MAB 청년포럼에 의미를 평가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에 청년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함.
- 스웨덴, 핀란드 등은 청년포럼 형태에 대한 검토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유네스코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

의제번호	3.2 38C/5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39C/5)

-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무국(ADG/SC)의 제안 설명이 있고, 40여개국 대표가 발언함. 위원회는 집행이사회가 권고한 39C/6 and Add. para. 01000에 예산액을 조정하고, 러시아의 제안 및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MLA1에 ‘기초과학’ 관련 언급을 추가하고, 케냐와 가나가 제안한 아프리카 MAB 기금 관련 내용을 추가(39C/8)한 39C/5 결의안 수정 후 채택함.
- MLA 1 수정: Harnessing **the sciences, including the basic sciences, technology and innovation** SFI and knowled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사무국(ADG/SC)은 이번 사업계획은 SDGs 이행 및 경제, 환경, 사회적 발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MAB, IHP, 지질공원 및 석좌, 카테고리 II 센터등 유네스코의 네트워크 활용, 과학 기술분야 성평등, 기후변화에 대한 유네스코 분야간 협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규예산 및 현재 확보된 비정규예산으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이 총당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함.
- 캐나다, 케냐, 스웨덴, 덴마크, 한국, 독일,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은 SDGs와 연계 강화, 부문간 협력 증진을 환영하면서, IHP와 MAB가 SDGs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수단 등은 국제협력 강화 및 카테고리 II 센터와 석좌를 통한 활동 증진을 요청함.
- 한국과 캐나다, 독일 등은 MAB와 지질공원의 SDGs 이행 기여 등을 언급하였고, 케냐는 지속가능발전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나와 함께 아프리카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한 DR을 제안했음을 소개하고, 부르키나 파소, 남아공, 베냉, 토고, 이디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를 받음. 말리, 니제르 등은 접경보호지역 설립 및 관리에 유네스코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나이지리아는 GEBR 지원에 대해 한국에 사의 표명.
- 케냐, 덴마크,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등은 물 안보와 IHP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프랑스와 핀란드는 물 관련 MLA를 별도로 제정한 것을 환영함. 헝가리는 IHP 가시성 증진이 필요함을 강조함.
- 케냐, 가나 등은 아프리카에는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북한도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개도국 지원 등을 강조하고, 유엔 제재로 EABRN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못했음을 언급함.
-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질공원의 혜택을 언급하였으며, 스페인은 지질공원 운영에 투명성 강화, 인증 및 재인증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러시아는 기초과학을 강조한 DR을 제출하였고, 세르비아는 기초과학 및 IBS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DR을 지지함.

의제번호	4.4 39C/18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7년 10월)에서 승인 권고를 받은 자연과학분야 6개의 센터 설립 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카테고리 1센터인 IHE를 카테고리 II 센터로 조정하는 제안서를 포함해 물 분야 2곳과 기초과학 분야 4곳의 센터 설립 승인함.
 - Centre on Water Security(멕시코): 물안보
 -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네덜란드): 물교육
 - Junior Academy of Sciences(우크라이나): 과학원
 - Institute of Mathematical Sciences(가나): 수학
 - International Competence Centre for Mining-Engineering Education(러시아): 광산공학
 - International Centre for Health-related Basic Sciences and Human Nutrition(이란): 건강기초과학

의제번호	4.9 39C/46
의제제목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
	UNESCO Strategy for Action on Climate Change

- 유네스코의 기후변화 행동 전략은 20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7년 4월)에서 승인되었음. 유네스코의 부문간, 주제별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무국(ADG/SC)의 설명과 다수의 이사국 지지 발언 후 결의안 초안의 일부 기술적 오류 정정 후 채택함.
 - 결의안 초안 para 3. ...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39C/46 annex para 21 IGCP → IGGP
- 독일, 방글라데시, 덴마크, 한국, 오스트리아, 모나코 등 다수의 회원국이 유네스코 기후변화 전략을 지지하면서 유네스코가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에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함. 쿡 아일랜드는 소도서개도국(SIDs)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IOC 활동을 언급하고, 프랑스, 체코, 중국 등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지정 지역을 활용할 것을 강조함.

- 한편 미국, 러시아, 남아공 등은 동 전략과 관련 다른 기구와 중복을 피하고 유네스코의 사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나, 사무국(ADG/SC)은 전략의 내용이 유네스코 사명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다른 유엔 산하 기구와 협력하고,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함.

의제번호	4.6 39C/40
의제제목	세계 빛의 날 선포
	Proclamation of an International Day of Light

- 2015년 세계 빛의 해에 이어 빛의 역할과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6일을 빛의 날로 선포하자는 제안에 대해 사무국(ADG/SC)의 안건 설명 후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함.
- 멕시코, 케냐, 러시아 등은 동 제안이 200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되었음을 언급하며 빛의 중요성, 발전을 위한 빛의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빛의 날 선포를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토고는 현재도 빛이 없이 지내는 사람(light divide)을 상기함. 우간다는 동 제안을 환영하면서 날짜를 3월 20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 결의안(일부 수정 후 채택)
 - 1.
 - 2.(신설) *Recalling the decision 200EX/dec. 27*(스웨덴)
 2. 3.(문구 추가) *Considering all countries, but being also aware of adverse impacts of the light pollution on nature and human lives.*(체코)
 - 3~5. 4~6.(번호 조정)
 - 7.(신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 para 8.(1) 참조: 멕시코가 ‘빛과 레이저 기술’을 제안하였으나 프랑스가 ‘빛 일반’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우간다의 제안으로 ‘세계 빛의 해’의 문구를 따름
 6. 8. *Decides:*
 - (1) ~~to endorse the proposal of the Executive Board for adoption of the celebration of the International Day of Light;~~(스웨덴)
 - (2)(1) to proclaim 16 May [~~23 September~~] as the International Day of Light, [~~the day as being recognized as light and light-based technologies and the revolutionary potential of light;~~];
 - 우간다가 9월 23일로 재제안했으나 멕시코, 가나 등이 레이저 관련 의미 있는 날로 5월 16일 유지를 주장하여 채택되었으며, 5월 16일의 의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논의 후에 스웨덴 제안으로 서문에 추가함

(3) to invite the Director-General to:

(i) 변동 없음

(ii) grant support to the annual celebration;

- 재정 지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와 공식 행사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해당 내용 삭제하자는 스웨덴 제안 수용

(iii)(ii) encourage Member States, in the event in a manner which each considers most appropriate and without financial implications for the regular budget of UNESCO. (스웨덴)

- 카타르는 과학연구자의 자유는 일반적인 것이며, 특히 환경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어 일본은 과학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자유는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며, 자연과학자그룹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 우간다, 독일, 캐나다, 엘살바도르, 네델란드 등은 충분한 비정규 예산(extrabudgetary funding)이 마련되었을 경우,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를 통해 문구 수정안을 제시함.

의제번호	4.19 39C/60
의제제목	2019 세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Proclamation of 2019 as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the Periodic Table of Chemical Elements

- 사무국(ADG/SC)은 동 제안은 유네스코가 유엔이 2019년을 세계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활동은 주로 IUPAC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일부 회원국의 지지 발언 후 결의안 수정 후 채택함.

• 결의안

1.

2. 문구 수정 없이 서문으로 이동

1.(추가) Welcomes 202 EX/Decision 43,

4~5 2~3 번호 수정

의제번호	3.2 38C/5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무국(ADG/IOC)의 제안 설명이 있었음.
-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 러시아, 쿠바,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IOC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인 기여 및 비정규예산 지원 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덴마크, 케냐는 IOC가 프로그램 2에서 분리된 것을 환영하면서 SDG 14에서 IOC의 주도적 역할, 쓰나미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평가함. 한편 덴마크는 IOC에 성평등이 잘 적용되지 않음에 아쉬움을 표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SDG 14 관련 IOC 활동을 지지하면서 유엔 해양과학 10개년, GOSR 참여 등을 언급하였고, 독일도 IOC의 지지국으로서 해양 모니터링, 쓰나미 조기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IOC의 전략적 활동 수행을 평가하며 유네스코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함. 핀란드는 극지방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해양 관련 정보 공유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우르과이, 터키, 카타르 등도 IOC에 지지를 표명함.
- 사무국(ADG/IOC)은 회원국의 IOC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IOC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비정규예산 지원을 언급함.
- 결의안 예산 부분 수정 후 채택.

의제번호	4.4 39C/18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사무국(ADG/IOC)으로부터 202차 집행이사회에서 승인 권고를 받은 IOC 분야 센터 설립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센터 설립을 승인함.
 -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n Operational Oceanography(인도)

의제번호	4.13 39C/52
의제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해양과학 10개년(2021-2030)
	International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21-2030)

- 동 의제는 IOC 총회에서 이미 논의되었기에, 사무국(ADG/IOC)의 의제 설명 후 논의 없이 결의안 초안 채택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함.
 - ocean과 science의 복수 표현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IOC 사무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임을 감안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채택.

□ 관찰과 평가

- 회원국들은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SDGs와 연계 강화를 환영하고,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업이 SDGs 이행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과학프로그램과 유네스코 지정 지역의 역할을 강조함.
 - MLA 2개로 구성된 39C/5 초안에서 물 관련 MLA가 추가 된 것에 대해 회원국은 환영했으며, 또한 케냐가 제안한 MAB 관련 기금 조성안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어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연과학 의제 논의 시에 기초과학에 대한 유네스코 역할에 회원국 간 상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러시아는 사업계획에 기초과학 관련 내용 강화를 주장하고, 빛의 날과 화학원소 주기율표의 해 선포 등을 주도했으나, 유럽국가들은 기초과학 강화 등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음.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으로 IBSP가 운영 중이나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소수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초과학 분야에 유네스코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논의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전반적으로 논의에 참여가 저조하였음. 미국은 기후변화 전략 논의 시에 유네스코의 사명을 언급하며 유네스코가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유보적이었으며, 인문사회과학분과의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채택 시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함.
- 새로운 형태의 청년포럼 개최와 관련, 회원국들은 청년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청년포럼이 총회의 진정한 부문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임.

3.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SHS Commission)

▣ 회의 기간 및 장소

- 11월 7일(화)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8일(수) 10: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9일(목)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인문사회과학 분과회의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XI)에서 4차례 개최되었으며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세계 인문학 대회 과제와 책임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승인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규정 개정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이번 총회는 2018-2021 동안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채택, 지난 10년 간 준비해온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 채택,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며,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 청년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7일(화)

- 개회(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의 사무총장 대리 발언)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11월 8일(수)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4.11 전환의 시기를 위한 과제와 책임: 세계 인문학 대회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의제 4.17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 의제 7.3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4.15 제6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급 국제회의(MINEPS VI) 후속 활동
- 의제 4.16 인도 오로빌과 유네스코 협력
- 의제 6.2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초안

11월 9일(목)

- 의제 7.4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Milan Konvit(슬로바키아)
- 부의장 : Mr Meral Özgüç(터키)
Ms Claudine de Kerdaniel(성빈센트그레나딘)
Mr Mohd Zulkifli Mohammed(말레이시아)
Ms Immolatrix Geingos-Onuegbu(나미비아)
- 보고자 : Mr Humoud Fahad Abdullah Alqashan(쿠웨이트)

▣ 상세 내용

의제번호	4.5 38C/19
의제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 of Youth Forum

- 제10차 청년포럼 참가자 중 반폭력 및 평화 관련 단체에 소속된 2명이 본인의 활동 경험을 소개하면서 청년을 위한 플랫폼 필요, 평화를 위한 활동 부족 등을 지적하고, 유네스코 청년포럼 개최 시기조정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청년 리더십 증진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
- 자메이카 청년 담당 장관은 청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평화 증진을 위해 청년과 스포츠의 연계를 강조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청년의 역할과 유네스코 활동에 청년의 참여 강화를 요청하였고, 특히 네덜란드는 청년들의 의견이 C/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직전이 아니라 1년 전에 청년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뉴질랜드, 노르웨이, 태국 등이 이를 지지함.
- 뉴질랜드, 스위스는 청년과 파트너십 강화를 지지하면서 이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협력과 후속활동 이행을 위한 역할을 강조함.
- 스위스와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은 청년포럼 참가자가 총회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발언하였으며, 이번에 새로운 형식으로 개최된 포럼을 평가하며, 11차 포럼 준비 절차는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여전히 청년포럼이 총회의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함.
-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은 참가를 원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사무국(ADG/SHS)은 전에 400명이 참석하여 진행한 청년포럼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형식으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 참가 신청을 한 2500명에서 6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소개함.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para 2. .. in cooperation with youth and their respective youth organizations from their respective countries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이탈리아, 알제리)
 - 모로코, 인도네시아는 사무총장에게 권고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새로운 문단 2 추가를 제안하였고, 독일, 알제리, 레바논 등은 문단 1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단 1 마지막에 추가할 것을 제안
 - 이집트는 새로운 문단 3에 아랍 지역의 활동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덴마크, 영국, 필리핀, 우크라이나는 결의안에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서 삭제를 주장하고, 네덜란드가 지지함
 - 네덜란드는 결의안 마지막 문단에 차기 청년포럼은 국가와 지역의 청년대표가 참여하여 총회 직전 해에 개최하자고 제안
 - 위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발적 워킹그룹이 논의한 후 다음 날 아래와 같이 채택
 - 1.
 2. *Invites the Director-General, in cooperation with the Member States, to ensure the follow-up on the UNESCO Youth Forum recommendations, and their meaningful implementation.*
 2. 3. *Invites Member States to support such efforts, in cooperation with youth and youth organizations,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and, in this context, welcomes relevant initiatives to engage youth, from local to global level from their respective countries.*
 4.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organize the Youth Forum well in advance to input into the C4 and C5 - preferably one year before the next General Conference -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national and regional youth organizations, including youth representatives, in the preparation of the format of the Youth Forum.*

의제번호	3.2 39C/5 and Addenda, 39C/6 and Add.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부문간 협력 강화, 윤리와 청년활동 강화 등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무국(ADG/SHS)의 설명 후, 23개국 대표와 옵서버가 발언함.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터키, 태국 등은 2030 의제와 연계가 강조된 사업계획안을 환영하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가 SDGs 달성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유네스코의 규범적 기능에 대해 언급함.
- 한국은 과학기술 윤리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하였고, 터키는 윤리 분야 역량 강화가 과제를 지적함. 캐나다, 핀란드 등은 COMEST, IBC 활동 향상 및 활용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고, 코트디부아르도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케냐, 핀란드,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쿠바 등은 차별, 사회통합 관련 MOST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슬로바키아는 ‘이주’의 우선순위를 환영하면서 세계인문학회의에서도 강조되었음을 재확인하고 MOST의 역할을 요청함.
- 케냐, 노르웨이, 덴마크, 자메이카는 성평등과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특히 스포츠가 사회통합, 연대, 관용 등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함. 중국, 세네갈 등은 청년 직업 기회 확대를,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청년 개발에 힘써줄 것을 요청함.
- 나미비아, 핀란드는 사업 실행에 효율성 향상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폴란드는 SDGs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간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함.
- 바누아투는 태평양 섬나라 국가를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청년들의 참여 확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네스코와의 협력활동 강화 등을 언급함.
- 독일은 유네스코에서 다양한 도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 내 부문간 협력을 요청하면서 국가위원회와 적절한 정보 교류를 요청함.
- 사무국(ADG/SHS)은 지난 2년 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통합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고, 생명윤리 분야의 성과를 설명함. 물 관련 IHP와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COMEST 및 IBC 활동에 자연과학 및 정보·커뮤니케이션 부분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청년활동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에 예산의 20%를 투자하고 있으며, 문화간 대화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부연함.
- 이어 IBC/IGBC, MOST IGC, CIGEPS, COMEST 활동 보고서를 접수하고, 예산안을 \$68,622,000으로 조정한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4.11 39C/50
의제제목	전환의 시기를 위한 과제와 책임: 세계 인문학 대회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for a Planet in Transition: World Humanities Conference

- 2017.8.6-11에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인문학회의의 성과에 대해 사무국(ADG/SHS)이 설명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세계인문학회의 개최에 대해 사무국과 벨기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노르웨이, 레바논, 태국, 네덜란드, 가나 등은 비판적 사고와 실천 등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자연과학과 협력할 것을 요청함.
- 한국은 세계인문학회의 성과를 치하하고, 201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인문학포럼을 소개하면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함. 케냐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문학의 기여 등이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함.
- 결의안 일부 내용 추가 및 수정 후 채택.
 -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결의안 초안 및 수정안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함
 - 1~3.
 4. *Welcomes* in this regard the regional initiatives proposed to follow up the World Humanities Conference;(말리 추가)
 5.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ncourage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etworks in order to enrich the humanities by the widest possible diversity of contributions, and in particular to support, in collaboration with the African Union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of the African continent and the Diaspora, the establishment of a Pan-African Humanities Network and the biennial organization of a forum for African Humanities, as advocated by the first African Humanities Conference, held in Bamako from 28 June to 1 July 2017, working with Member States to mobilize for this purpose the appropriate extrabudgetary resources.(말리 제안, 레바논 수정)
 - 4~5. 6~7
 8. *Calls upo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tably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Decade of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to do their utmost to draw on the potential of the humanities to promote intercultural exchanges, mutual understanding and learning and coexistence of peoples and cultures and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humanity.(중국 제안, 독일 수정) 인문학회의와 연계 강화로 수정 제안
- 결의안 채택 후 말리가 인문학회의와 한국에서 개최하는 인문학포럼 간 통합에 대해 발언 하였으나 논의 없이 다음 의제로 넘어감.

의제번호	4.4 39C/18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논의 없이 결의안 채택.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카자흐스탄): 문화간 화해
 -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and Regional Levels(오스트리아): 인권 증진
 - ※ 오스트리아의 첫 카테고리 II 센터

의제번호	4.17 39C/58, 85
의제제목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MOST) Intergovernmental Council

- MOST 의장인 말레이시아 대표가 동 안건 관련 인문사회과학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발언을 한 후 논의나 수정 없이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친 수정된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7.3 39C/26 Rev
의제제목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4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 논의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4.15 39C/INF.14
의제제목	제6차 체육교육과 스포츠 장관급 국제회의(MINEPS VI) 후속 활동
	Follow-up to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inisters and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MINEPS VI)

- 동 의제 제안국인 러시아가 MINEPS VI(2017.7.13-15, 러시아 카잔)의 성과를 소개하고 동 회의 결의안 실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사무국(ADG/SHS)은 동 회의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하였음.

- 덴마크는 CIGEPS, MINEPS, 반도핑협약 등 자국이 유네스코 스포츠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카잔 선언은 자국의 우선순위와도 일치한다고 지지를 표명하고, 결의안 초안의 예산 언급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했고, 독일, 영국 등이 지지함. 이에 대해 러시아는 예산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하는 수정의견 제출.
- 세네갈은 스포츠의 진실성(integrity)을 언급하며 조작 등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중국 등은 스포츠의 중요성과 MINEPS IV의 성과를 지지하면서 이의 이행과 SDGs의 연계를 주목함.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1~2
 - 3. *Invites*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 Kazan Action Plan, identify and resource specific activities of the Action Plan which are, **where appropriate, based on their national priorities**, ~~of national importance~~, and advoc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iton Plan at regional levels;(이란)
 - 4.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nsure ~~saving of the regular budget for UNESCO's sport programme at the same level and~~(덴마크) a lead role for UNESCO in coordinating the follow-up of the Kazan Action Plan as a priority for UNESCO's sport programme, ~~avoiding at the same time an additional financial obligations on the regular budget~~;(러시아)
 - 5. *Encourages* CIGEPS to support the follow-up to the Kazan Action Plan and ~~to prioritize~~(덴마크) the monitoring of its implementation **and include this item in its agenda of the next meeting**(쿠바)

의제번호	4.16 39C/COM SHS/DR.2
의제제목	인도 오로빌과 유네스코 협력 Cooperation of UNESCO with the International Township of Auroville, India

- 동 의제를 제안한 인도가 1968년에 설립된 오로빌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 없이 오로빌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함.

의제번호	6.2 39C/22 Rev
의제제목	기후변화 윤리적 원칙 선언 초안 Desirability of preparing a declar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 사무국(ADG/SHS)은 사무총장이 임명한 24명의 전문가가 준비한 초안을 정부간 회의 등을 거쳐 현재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선언 초안 준비 과정을 소개함.
- 케냐는 기후변화 관련 선언 준비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동 선언이 회원국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면서 국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함.
- 에콰도르, 나미비아, 수단, 그레나다, 이란, 코트디부아르, 가나, 태국, 성빈센트 그레나딘, 폴란드, 독일, 멕시코, 쿠바 등은 회원국 합의로 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며, 적절한 시기에 유네스코에서 기후변화의 윤리적 측면을 논의하는 것을 평가함. 캐나다, 호주, 일본, 핀란드 등은 UNFCCC 및 파리협정의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함.
- 한국도 발언을 통해 선언 채택을 지지하면서 파리협정 이행에 동 선언이 기여하기를 바라고 선언 채택 이후의 활동이 중요함을 지적함. 터키는 기후변화 역량 강화, 교육 등에 노력할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7.4 39C/23
의제제목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1974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 사무국(ADG/SHS)은 37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74년 권고 개정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학자의 지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유네스코 2015 세계과학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동 권고는 과학윤리, 정책에 여전히 유효하며 인권 측면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설명함.
※ 동 의제는 회원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아 마지막 세션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으나, 러시아 및 브라질이 제안한 권고의 본문을 수정하자는 DR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결의안 채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독일 대표의 제안 및 리더십으로 러시아 및 브라질 제안을 권고 본문이 아니라 결의안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최종 합의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함.
- 케냐, 프랑스, 이탈리아, 나미비아, 핀란드 등 다수의 회원국은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권고 개정을 지지하며, 윤리, 차별금지, 여성, 연구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권고 이행을 위한 지침이 중요함을 지적함. 캐나다는 동 권고 관련 과학연구의 중요성, 과학 외교, 과학과 사회 간 대화 강화 등을 요청하고, 폴란드는 윤리,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자 권한 강화를 지지함.
- 러시아는 권고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 청년 활동, 지적 재산권 관련 내용을 권고 본문에 추가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네덜란드는 권고 본문 수정 제안은 너무 늦게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없고, 현재 안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함. 체코

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권고 본문에 대한 것이 아니며, 결의안에 권고의 주요 분야 10가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한국을 포함 노르웨이 등 다수의 회원국이 동 수정안을 지지함.

- 영국,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은 동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수정 제안은 WIPO 등 다른 기구와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고 본문 수정안 논의를 반대하며 현재 안 채택을 지지함.
- 브라질은 동 권고 개정 논의 과정에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간 회의 등이 개최되지 않은 절차를 지적하였으나, 스웨덴은 초안이 5월에 회원국에 공람되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서 권고 본문에 대한 수정 없이 채택할 것을 요청함.
- 의장은 러시아와 브라질이 제출한 권고 본문 수정에 대해 회원국들이 반대한다고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나 러시아와 브라질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프랑스가 권고 본문이 아니라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이어 독일이 실무그룹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위원회를 휴정하고, 30여개국에 참여한 실무그룹이 합의한 결과를 위원회가 채택함.
 - 실무그룹 보고(독일 대표): 권고 본문은 수정하지 않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제안은 결의안에 포함하며, 결의안 서문에 개도국 지원 강화, 청년 참여, 유네스코의 Open Access 정책 등 5가지 내용을 추가하고, 네덜란드와 체코 수정안 일부를 재수정함.

5. *Invites the Secretariat to develop **submit to Member States** new guidance for the future monitoring of the Recommendation,*

- 결의안 채택 후 브라질은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의장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 관찰과 평가

-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2018-2021 사업계획이 SDGs와 연계가 강화된 것을 평가하면서 유네스코가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청함. 세계적 과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성평등과 청년 참여, MOST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후변화와 과학연구자 권고 관련 논의 시에 유네스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지적하면서 유네스코의 고유 사명에 집중하고 다른 기구와 중복·충돌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참여, 성평등, SDGs 이행 등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발언에 참여하였음. 러시아는 1974년 권고 관련 지적재산권 주장 등 다른 회원국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러시아의 제안을 수정하고 합의를 이루게 하는 활약을 보임.
- 이번에 새로운 형식으로 개최된 청년포럼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청년들이 유네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함. 특히 북유럽 나라들은 청년들을 자국 총회 대표단에 포함시켜 청년포럼 의제에서는 직접 발언하게

하는 등 청년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우리나라는 이번 청년포럼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유네스코 청년활동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국내 정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 모색 필요
-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MOST와 IGBC 등 2가지 정부간 사업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열린 세계인문학회의가 인문학 분야의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가 개최해온 세계인문학포럼도 이 계기에 회원국에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개최할 포럼에 회원국의 참여를 높이고 유네스코 활동과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성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과 ‘과학연구자 지위에 관한 1974년 권고’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앞으로 이 규범문서들이 유네스코 활동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임. 회원국들은 동 선언 채택을 지지하면서도 유네스코의 선언이 UNFCCC의 원칙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기후변화 협상 관련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임.

4. 문화 분과회의(CLT Commission)

▣ 일시 및 장소

11월 8일(수)~9일(목) 10: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I

▣ 요지

- 문화 분과회의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XII)에서 4차례 개최되었으며 △2018-2021년도 문화 부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승인 및 동 위원회 소관 5개 의제(△청년포럼 결과 보고 △인류의 진화, 적응, 확산 연구 동남아시아센터 (Regional Centre for Human Evolution, Adaptations & Dispersals in Southeast Asia) 설립 승인 △예루살렘과 제38차 총회 결의안 52 이행 △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강화전략 △문화 분야 주요협약 정부간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한 논의가 실시됨.
- 대다수 회원국들은 2030 의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문화 부문 사업 방향과 사업계획안을 지지함. 회원국들은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의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간개발 모두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 보호,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함.
- 문화 분과회의는 무력 충돌 시 문화의 보호, 문화다원주의의 증진은 물론 자연재해와 연관된 긴급 상황에서의 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행동강화 전략과 이의 실행계획을 지지하면서 자연재해 대응에 관한 부록문서(Annex I)와 문화 보호 및 문화다원주의 증진에 관한 부록문서(Annex II)를 함께 승인하기로 결정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8일(수)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4.12 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 강화 전략

11월 9일(목)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 의제 4.2 예루살렘과 제38차 총회 결의안 52 이행
- 의제 4.14 문화 분야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 잠정의제 중 교육 및 문화 분과회의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었던 의제 4.3에 대한 논의가 교육분과에서 이미 다뤄졌고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문화 분과회의에서는 별도 논의 없기로 결정. 아울러 의제 4.14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39C/REP/22은 제안 철회에 따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s Vincenza Lomonaco(이탈리아)
- **부의장** : Ms Venera Domi(알바니아)
Mr David Osorio(볼리비아)
Mr Virgilio Almario(필리핀)
Mr Collins Chipote(잠비아)
- **보고관** : Mr Mounir Anastase(팔레스타인)

▣ 상세 내용

의제번호	Item 4.5 39C/19
의제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 “Rethinking Youth Engagement with UNESCO”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청년포럼의 결과물인 권고에 대해 문화 분과회의는 지지를 표하고 유네스코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다수의 회원국은 청년포럼의 권고내용이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정책 및 사업 운영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 유네스코 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권고는 청년대상 유네스코 활동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청년과의 대화/협의 공간/기회 확대, 유네스코 청년포럼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운영방안 재검토, 청년의 리더십 제고 등을 제안함.
- 토의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대체로 청년이 유네스코 사업 및 활동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청년에 대한 시각 변화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문화 분야의 경우 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물론 효과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기여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수차 강조함. 특히, 일부 회원국들은 문화/창의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역량 강화, 청년과의 협업 강화 등을 강조함.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Item 3.2 39C/5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대다수 회원국들은 2030 의제(SDGs)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문화부문 사업 방향과 사업계획안을 지지함. 회원국들은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회의 정체성 형성, 사회통합,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간개발 모두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면서 문화유산 보호,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함.
- 서구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문화 분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한 사업 방향에 지지를 표하면서 협약의 비준율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동참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덴마크를 비롯한 몇몇 회원국은 협약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체계 강화 필요성과 함께 문화 분야 재원의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운영 전략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반면, 쿠바 등 일부 회원국은 재원이 주요 협약사업에 집중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 분야 여러 사업들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함.
- 다수의 회원국은 유네스코의 재정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문화부문 예산 상황에 대한 사무국의 안내를 요청함. 이에 39C/5 예산안과 현재 정규 및 비정규예산을 통틀어 확보가 예상되는 재원 간의 편딩갭이 미화 15,366,500불에 이른다고 안내하고 ‘통합예산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함.
-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이태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터키, 네델란드, 폴란드, 나이지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등)들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법적인 문화재 파괴, 문화재 불법 거래·반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제적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공조를 통한 해결 노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몇몇 회원국들은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며 201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박물관 및 소장품 보호와 증진에 관한 선언의 이행을 강조함.
- 이탈리아는 문화정책의 실질적 이행 터전으로서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강조했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중국, 스웨덴, 케냐,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등은 창의산업 및 창의도시를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서의 기여를 강조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유엔의 2030 의제와 유네스코 문화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초와 목표 설정을 지지하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분리주의적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의 폭력과 갈등 해소 및 평화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개발과 운영을 사무국에 당부함.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에 의한 문화재 파괴, 온라인 문화재 밀반출 등 새롭게 대두된 글로벌 문제와 관련, 유네스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언급하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국은 물론 관련 협약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매년 격화되고 있는

세계유산협약 및 무형유산보호협약 사업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모든 회원국 및 사무국의 자성과 개선 노력 필요성을 지적함. 끝으로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개최국이자 무형유산 등재 결정방식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동 협약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무형유산 등재 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 중임을 소개함.

- 결의안(39C/5) para 05000 중 예산 부분 아래와 같이 수정 후 채택.
 - (c) to allocate for this purpose for the period 2018-2019 the integrated budget amount under all sources of funds of: **\$118,173,700(사무국 제안)**
 - ~~in the case of the budget scenario which includes the regular budget of \$667-million: \$122,897,500~~
 - ~~in the case of the budget scenario which includes the regular budget of \$653-million: \$121,565,500~~

의제번호	Item 4.12 39 C/57
의제제목	<p>무력 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 강화 전략</p> <p>Strategy for the reinforcement of UNESCO's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e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pluralism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p>

-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력충돌 시 문화 보호와 문화다원주의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행동강화전략” 관련 결의안(38C/Resolution 48)을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회원국 및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이후 제20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사무국이 준비한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무력충돌 시는 물론 자연재해 시 문화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전략과 실행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음.
- 문화 분과회의는 무력 충돌 시 문화의 보호, 문화다원주의의 증진은 물론 자연재해와 연관된 긴급 상황에서의 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행동강화 전략과 이의 실행계획을 지지하면서 자연재해 대응에 관한 부록문서(Annex I)와 문화 보호 및 문화다원주의 증진에 관한 부록문서(Annex II)를 함께 승인하기로 결정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무력 충돌 시, 자연재난 상황 하는 물론 평시에도 문화 및 문화다원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내차원에서의 이행 메커니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밀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내/국제적 대응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
- 그리스가 제안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47(2017)”을 서두(Preambular) 문단 가장 위로 옮긴 것 이외에 추가 수정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Item 4.4 39C/18 Part XII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논의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Item 4.2 39C/16
의제제목	예루살렘과 제38차 총회 결의안 52 이행
	Jerusalem and the implementation of 38C/Resolution 52

- 의장 제안으로 논의 없이 알제리가 발의한 DR(39C/com CLT/DR.2) 원안대로 채택.

의제번호	Item 4.14 39C/REP 19, 39C/REP 20, 39C/REP 21, 39C/REP 23
의제제목	문화 분야 정부간위원회 활동 보고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n its activities

- 문화 분야 정부간위원회 활동보고(39C/REP 19, 39C/REP 20, 39C/REP 21, 39C/REP 23)은 청취/토론 없이 접수함. 단, 중남미 캐리비안 지역을 대표하여 온두라스가 제안한 DR(39C/Com CLT/DR.1)에 대한 토론 실시.
- 온두라스는 의제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문화재 불법반출/거래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199, 2253, 2347을 상기시킴. 아울러 1970년 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이행, 효율성, 가시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 1970년 협약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 발언한 모든 회원국들은(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그리스, 스웨덴, 스위스, 라트비아, 덴마크, 캐나다, 터키, 일본, 이탈리아 등) 온두라스 제안 DR에 지지를 표명함. 단, 프랑스를 비롯한 북구유럽 국가들은 1970년 협약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이행방법 상의 보완노력은 지지하나 협약의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덴마크 등은 1970년 협약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UNIDROIT협약에 보다 많은 회원국이 가입하여 국제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일부 문구 수정 후 결의안 채택.

The General Conference,

Recalling Resolution 4.MSP 17, from the Fourth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ESCO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which asks the Subsidiary Committee to define and start an open and inclusive reflection process in order to identify potenti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the efficiency and the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and its Operative Guidelines, including the opportunity of establishing a List of Best Practices,

Also recalling decision 5.SC 6 bis from the Fifth Session of the Subsidiary Committee of the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ESCO 1970 Convention and the progress made by the Subsidiary Committee to start such process,

Further recalling Reminding the Operative Guidelines of the Convention, adopted by the Third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ESCO 1970 Convention, as a useful instrumen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Noting the high interest expressed by States Parties to continue the reflection on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and visibility(1970년 협약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는 에콰도르 안에 대해 북구유럽국가들이 반대, 덴마크가 제안하고 벨기에가 수정한 “1970년 협약의 이행, 효과성, 가시성 강화”라는 문구로 합의), and in view of the upcoming 5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Recall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199(2015), 2253(2015), and 2347(2017)(그리스 제안)

1. Expresses its support to the ongoing process and encourages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and the Subsidiary Committee to actively participate in it;
2. Asks the Fifth Meeting of States Parties to the UNESCO 1970 Convention to report to the 4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on the progress done in this matter;
3. Decides to include this item on the agenda of the 40t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 관찰과 평가

- 2018-2021년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문화 분야 협약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정규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협약사업들의 경우 비정규예산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함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금차 총회 문화 분과회의에서는 무력 충돌 시 문화의 보호, 문화다원주의의 증진은 물론 자연 재해와 연관된 긴급 상황에서의 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행동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문화재 불법 반출 및 거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이 수차 강조됨. 특히, 사무국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UNIDROIT협약 가입의 필요성 등이 강조됨.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막는 실효적인 방법은 민사적인 규율의 실질적 적용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바, 자기집행적 효력이 있는 동 협약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동 협약에 가입할 경우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겠지만 협약 가입을 통해 국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크게는 문화재 환수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발언권과 도덕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금차 총회 문화 분과회의는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을 포함 6개의 의제만을 토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진 의제는 39C/5를 포함 단 세 개의 의제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이사회가 권고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의 토론이 이뤄짐.

5.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CI Commission)

□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월) 10:00~13:00,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I
- 11월 7일(화) 10:00~13:00, 15:00~18:00, 19:00~20: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I

□ 요지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XII)에서 5차례 진행되었으며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2015년 이후 정보사회 세계 정상 회의(WSIS)에 대한 보고 △퀘백선언: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공개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설정 등 관련 의제를 논의 후 이를 채택함.
- 다수의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39C/5를 통한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략,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30 의제의 실행에 유네스코 적극 기여 △CI 섹터의 정규 및 비정규 예산의 확보 △언론인 안전 및 정보의 자유로운 보장 △세계 기록유산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카테고리 II 센터로 설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함.

□ 논의 의제 및 일정

11월 6일

- 개회(의장단 선출, 일정 채택, 정보·커뮤니케이션 사무총장보의 사무총장 대리 발언, IPDC와 IFAP 사업 보고)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4.18 퀘백행동계획: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 의제 4.4 카테고리 II 센터
- 의제 4.21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에콰도르 남미 고등커뮤니케이션 연구 국제센터)
- 의제 4.7 2015년 이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대한 보고

11월 7일

- 의제 6.3 공개교육자원(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마련
- 의제 4.20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행동계획 이행 관련 유네스코 리더십 강화
- 의제 4.5 청년포럼 결과

▣ 의장단 선출

- 의장 : Mr Martin Hadlow(호주)
- 부의장 : Ms Elaine Ayotte(캐나다)
Mr Atanas Mladenov(불가리아)
Ms Chafica Haddad(그레나다)
Mr Khalil Karam(레바논)
- 보고관 : Ms Patience Mhandu(짐바브웨)

▣ 상세 내용

의제번호	3.2 39C/5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사무국(ADG/Ci)이 의제 3.2에 대해 설명을 하고, 25개국 대표와 1개 비정부기구 대표가 발언함.
- 차기 사업 및 예산안(39C/5) 의제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언론인에 대한 위협 및 온라인상의 극단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함.
-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에콰도르는 인터넷 보편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은 발언을 통해 유네스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SDG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구축)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언론인 안전을 위한 유네스코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함. 또한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III 센터인 국제기록유산센터의 한국 설립과 관련하여,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 등 MOW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함.
- 결의안 일부 수정 후 채택.

의제번호	4.20 39C/61
의제제목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행동계획 이행 관련 유네스코 리더십 강화
	Strengthening UNESCO's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Plan of Action on Safety of Journalists and the Issue of Impunity

- 사무국(ADG/CI)이 의제 4.20에 대해 설명하고, 38개국 대표가 발언함.
- 사무국(ADG/CI)은 언론인 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여성 언론인 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 행동계획’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행동계획’ UN 모든 회원국이 지지하는 의제라고 밝힘.
- 영국, 스웨덴, 태국, 덴마크, 리투아니아, 미국, 수단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언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의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인도네시아, 캐나다,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은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언론인 안전을 위한 친구들’(Group of Friends for the Safety of Journalists)의 창설을 환영하고,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고 언론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희망함.
-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인 공격 상황을 보고하고 카불에 미디어 하우스(media house)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도와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피력함.
- 러시아는 이 의제를 지지하지만 이 의제 실행에 있어 유네스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현황 보고서에도 정보가 충분히 담겨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 핀란드는 이 의제에 관한 한 유네스코가 유엔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함.
- 우리 측은 이 문제에 있어 유네스코의 모니터링과 보고의 역할을 강조하며, 언론인 대상 불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결의안 채택에 있어 ‘언론인’의 범주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원국들 간 의견차가 있어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음. 특히 이란, 러시아 등이 결의안에서 “social media producers”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반면, 미국, 에스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한국 등 다수 회원국이 이 결의안이 이미 집행이사회에서 검토 후 승인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여 결의안 서문의 네 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 후 결의안 채택.

Strongly condemning all attacks against journalists, ~~and media professors,~~ media workers as well as social media producers who ~~contribute to~~ generate a significant amount of journalism, online and offline, and recognizing the need to improve safety conditions for journalists in all situations, including armed conflict,

의제번호	4.4 39C/18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 Establishment of category 2 institutes and centr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사무국(ADG/CI)이 의제 4.4에 대해 설명.
- 한국은 발언을 통해 5000년에 이르는 기록유산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자 미디어와 ICT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 한국이 기록유산 분야의 카테고리II 센터를 갖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센터 건립으로 MOW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각국의 기록유산 보존 역량 강화 및 기록유산의 디지털화 기술을 공유하여 유네스코 기록유산사업의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겠다고 밝힘.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설립 승인).

의제번호	4.21 39C/62
의제제목	카테고리 II 센터 설립(에콰도르 남미 고등커뮤니케이션 연구 국제센터)
	Establishment in Quito, Ecuador, of an International Centre of Advanced Communication Studies for Latin America(CIESPAL) as a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category 2)

- 사무국(ADG/CI)이 의제 4.21에 대해 설명을 하고, 2개국 대표가 발언함.
- 에콰도르가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본 센터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아르헨티나 대표가 본 센터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냄.
- 에콰도르 남미고등커뮤니케이션연구국제센터의 카테고리 II 센터승인을 204차 집행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4.7 39C/41
의제제목	2015년 이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에 대한 보고
	Report on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 SIS) beyond 2015

- 사무국(ADG/CI)이 의제 4.7에 대해 설명 하고, 17개국 대표가 발언함.
- 이란,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등이 WSIS의 행동지침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인터넷 보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잠비아는 인터넷 보편성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함. 에콰도르는 인터넷 보편성이 미묘한 개념인 것은 분명하며, 유네스코의 틀 내에서 이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보편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함.
- 러시아는 인터넷 보편성을 측정할 지표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인터넷 보편

성의 개념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표 적용부터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함.

- 사무국(ADG/CI)은 인터넷이 일종의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특히 인터넷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든가 극단주의 세력의 도구로 쓰이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보편성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충 설명함.
-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극단주의 및 국가 간 분쟁이 점점 잦아지는 오늘날에 다양한 정보를 제대로 판별할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정보 문해력(MIL)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ICT 강국으로서 WSIS의 행동지침 이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발언함.
- 사무국(ADG/CI)은 경제적 이유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디지털 격차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보 접근성의 윤리적, 인본주의적 측면을 강조함. 또한 온라인상의 폭력적 극단주의 퇴치, 정보 접근에 있어 양성 평등, 청소년을 인터넷 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등의 문제는 ICT 관련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12월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결의안에 아래 두 문단이 추가된 후 채택.

3. *Invites Member States and all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voluntarily strengthen their participation in, and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UNESCO's WSIS endeavours in defining and, when established, applying Internet universality indicator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IPDC.*(핀란드, 폴란드 등 제안, 영국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등이 지지)

5.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continue further reinforcing UNESCO's leading role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by taking the necessary steps for the implementation of WSIS outcomes, by building on UNESCO's comparative advantages, including its intersectoral and interdisciplinary expertise and furthering work related to building knowledge societies;*(한국 제안)

의제번호	4.18 39C/59
의제제목	퀘벡행동계획: 인터넷과 청소년 극단화
	Quebec's Call for Action: Internet and the Radicalization of Youth

- 사무국(ADG/CI)이 의제 4.18에 대해 설명을 하고, 6개국 대표와 1명의 옵서버가 발언함.
- 사무국(ADG/CI)은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극단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2016년 퀘벡회의에서, '퀘벡행동계획'을 39차 유네스코 총회에 보고서의

부속서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고 의제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함.

- 캐나다가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의 극단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교육과 미디어 분야에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각국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등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함.
- 교황청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가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화의 문화 달성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인간적’ 이용을 강조함.
- 아랍에미리트는 청소년 극단화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극단주의와 불관용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자국의 노력 중 한 가지로 알-히다이야 센터(Al-Hidaya Center) 운영을 언급함.

의제번호	6.3 39C/47
의제제목	공개교육자원(OER)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마련
	Desirability of a standard-setting instrument o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 사무국(ADG/CI)이 의제 6.3에 대해 설명을 하고, 23개국 대표와 1개 비정부기구 대표가 발언함.
- 핀란드, 독일은 공개교육자원(OER)이 2030 의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지식의 보편적 접근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 스웨덴, 덴마크는 핀란드, 독일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OER 사업을 위한 비정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함.
- 우간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닝(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다른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함.
- 슬로베니아는 OER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시스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9월에 자국에서 개최된 제 2회 OER 국제회의(The 2nd World Open Educational Resources Congress)를 언급함.
- 아랍 에미리트는 이 대회 개최에 대해 슬로베니아에 사의를 표하고 OER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코딩의 오픈소스 제공, 유네스코 내 OER을 담당할 부서 설치를 주문함.
- 다수 회원국들이 공평한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OER 활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유네스코가 이 분야에 좀 더 투자하기를 주문함.
- 한국은 OER의 긍정적 효과들을 언급하고 그러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권고안의 형태로 OER 표준 설정 수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의제번호	4.5 39C/5
의제제목	청년포럼 결과
	Conclusions of the Youth Forum

- 위원회는 청년포럼 대표 2명으로부터 청년포럼의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 논의 결과 및 결의문 내용을 청취하고, 위원회 중 6개국 대표가 발언함.
- 청년포럼 대표는 청년과 미디어 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디어에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이 좀 더 대변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온라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 진작 등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기대함.
- 러시아는 지난 10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소치포럼을 언급하면서, 특히 청년/청소년의 극단화 방지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주문함.
- 쿠바는 청년포럼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캐나다, 엘살바도르, 모로코, 케냐 등은 청년포럼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무국(ADG/CI)은 청년포럼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쿠바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기간 연장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아울러, 소치포럼이 청년들의 팀 오리엔테이션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치하하면서 청년들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함.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 관찰과 평가

- 다수 회원국들이 사무국이 준비한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CI 분야의 비정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함.
- 사업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기여할 수 있거나 다룰 수 있는 분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OER의 중요성을 역설한 반면, 언론인 안전 및 불처벌 문제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불처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한 반면 러시아, 이란 등 일부 회원국 등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의견 차가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음.
- 북유럽국가를 위주로 한 일부 선진국 그룹은 기록유산등재를 둘러싼 정치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음.

6.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 분과회의(APX Commission)

▣ 일시 및 장소

- 10월 31일(화)~11월 3일(금) 10: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11월 4일(토) 10:00~19:0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 분과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유네스코본부(Room XI)에서 10차례 진행되었으며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거버넌스 워킹그룹 권고사항 등 19개 의제를 논의함.
- 다음 회기 사업 및 예산안(39C/5)의 예산상한은 595.2백만 달러, 지출계획은 518백만 달러를 각각 승인함(예산상한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 재조정된 금액이며, 미국 탈퇴로 인해 회원국별 분담금 부담 비율(금액은 아님)에 변화가 생길 예정).
-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무국에 별도의 교신을 하지 않은 7개국(안티구아바부다, 코모로, 가봉,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 사우토메, 미국)과 교신을 제출했으나 투표권 워킹그룹에 의해 승인받지 못한 1개국(리비아)은 금번 총회에 투표권을 상실함.
- 거버넌스 워킹그룹이 합의하지 못한 4개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은 참여하게 대립하였으며, 특히 집행이사국 임기 연임 제한 권고 채택은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됨(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권고가 채택됨).
- 유네스코 직원 정년 연장 보류에 대한 안건도 참여하게 대립하였으며, 논의 끝에 보류하지 않고 2018년부터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이 채택됨.

▣ 논의 의제

10월 31일(화)

- 의제 1.3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5.2 조직의 지역 활동 이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 의제 4.10 현대사회에서 소리의 중요성: 우수사례 증진
- 의제 10.3 유엔공동직원연금기금 운영 보고 및 유네스코 직원 연금 위원회 회원국 신규 임명
- 의제 10.2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 의제 10.6 2017-2011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3.4 잠정 예산 상한 채택
- 의제 9.2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 의제 9.4 유네스코 운영기금(Working Capital Fund)

11월 1일(수)

- 의제 3.4 (계속)
- 의제 11.1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 의제 5.1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11월 2일(목)

- 의제 5.1 (계속)

11월 3일(금)

- 의제 9.1 2016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 의제 10.5 의료혜택기금(MBF) 감사보고서
- 의제 8.2 참여프로그램(PP) 및 긴급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원칙, 조건, 규칙
- 의제 8.1 운영기구(governing body)를 포함한 회원국과 NGOs간 질적 대화 제안
- 의제 4.1 2018-2019 회원국 제안 유네스코 기념일
- 의제 8.3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 의제 10.1 직원 규정 및 규칙

11월 3일(토)

- 의제 10.1 (계속)
- 의제 3.1 예산 수립 방법 및 기술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9.3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 의제 5.1 (계속)

▣ 의장단 선출

- **의장** : Ms Lorena Sol De Pool(엘살바도르)
- **부의장** : Ms Maria Teresa Lizaranzu Perinat(스페인)
Ms Marjutka Hafner(슬로베니아)
Ms Maria Theresa P. Lazaro(필리핀)
Mr Hamda Alsulati(카타르)
- **보고관** : Mr Marthinus van Schalkwyk(남아프리카공화국)

▣ 상세 내용

※ 의장은 10개 의제(4.1, 5.2, 9.1, 9.4, 10.1, 10.2, 10.3, 10.4, 11.1)를 논의 없이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캐나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제안에 따라 의제 4.10(C/49 현대사회에서의 소리의 중요성)도 논의 없이 채택되는 의제에 포함됨. 다만, 쿠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논의 없이 채택되는 의제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며, 독일과 캐나다는 의제 10.1(39C/33 직원 규정 및 규칙)이 러시아는 의제 10.2(39C/34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피력함. 특히 독일은 의제 10.1을 가능한 분과회의 뒤쪽 일정으로 미뤄줄 것을 제안함.

의제번호	1.3(39C/10 and Add.)
의제제목	유네스코 헌장 제IV조 C항 8(c) 문단 관련 회원국 제출 서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communication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invok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V.C, paragraph 8(c), of the Constitution

- 사무국(CFO)은 10월 31일 오전 기준, 16개국이 분담금 미지급 중이며, 이 중 3개국만이 사무국에 미지급 사유를 알려온 상황임을 지적, 11월 2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에 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강조.
- 10월 31일 의장은 선거 그룹별 1명으로 구성될 워킹그룹이 체납한 국가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워킹그룹은 독일, 슬로베니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나미비아, 오만으로 구성되었으며(현장에서 자원) 분담금을 체납한 16개국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5일간 논의하기로 함.
- 11월 4일(토) 오전 투표권 워킹그룹(의장: 독일 대사)은 투표권을 잃게 하는 건 분담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82번 룰에 따라 8개국으로부터 제출된 지연납부 등 사유서한을 검토했음을 설명. 다만, 시간부족으로 인해 동 커뮤니케이션을 제출한 회원국과 협의를 진행할 시간은 없었음을 안타까워함(그래서 지난번에 rules of procedure 수정을 요청한 바 있음. 참고로 UN은 6개월 동안 검토함). 기니아비소, 소말리아, 리비아, 남수단, 수단, 타즈키스탄, 예멘, 티모아레스테 중 리비아의 투표권 박탈 최종 결정. 리비아는 자동적으로 투표권이 박탈된 7개국(안티구아바부다, 코모로, 가봉, 이스라엘, 마이크로네시아, 사우토메, 미국)과 함께 투표권 박탈됨.

의제번호	5.2 (39C/56)
의제제목	조직의 지역 활동 이행을 위한 지역의 정의
	Definition of regions with a view to the execution by the Organization of regional activities

- 금번 총회에서 준회원국인 뉴칼레도니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으로 분류되기를 요청한 바 이를 승인함.

의제번호	4.10(39 C/49)
의제제목	현대사회에서 소리의 중요성: 우수사례 증진
	The importance of sound in today's world: promoting best practices

- 논의 및 결의안 수정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10.3(38 C/35)
의제제목	유엔공동직원연금기금 운영 보고 및 유네스코 직원 연금 위원회 회원국 신규 임명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and appointment of Member States' representatives to the UNESCO Staff Pension Committee for 2018-2019

- 유네스코 직원연금 위원회의 회원국 대표로 케냐, 브라질, 필리핀이 그 대표직을 연임하여 총 3개 대표가 임명됨.
- 교체 대표로는 이집트, 알제리, 이란이 임명됨.

의제번호	10.2(38 C/34)
의제제목	직원 급여, 상여금 및 혜택
	Staff salaries, allowances and benefits

- 일부 회원국의 간단한 질문 후,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됨.

의제번호	10.6(39 C/43 and Add., 39C/INF. 12)
의제제목	2017-2011 인적자원관리(HRM) 전략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Human Resources Management Strategy for 2017-2022

- 한국은 본 전략을 환영하며,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 본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치하하며, 성평등 및 지역균등 배분 관련 내용의 꾸준한 업데이트를 요청함(결의안 일부 수정 제안).

- 덴마크와 캐나다도 본 전략을 환영하며, 직원교육과 순환근무의 의미에 대해 지적함. 특히,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 엘살바도르, 수단, 케냐, 통가 등 다수의 회원국은 여전히 지역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함.
- 다수의 회원국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함.
- 세르비아는 회원국 대상 인적관리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사무국(인사국장)은 지역균형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언급하여, 2018년부터 재개되는 YPP가 지역불균형 해소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 유네스코가 성평등에 성공한 몇 안되는 UN 기관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P-4, P-5 직급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순환근무(mobility) 관련, 지역적 이동뿐만 아니라 분야별 이동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 인건비 중 2-3%가 직원 교육에 투자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함. 또한 회원국 대상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으나, 직원대상 조사는 실시할 계획이며 회원국의 의견도 청취할 것임을 강조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노력 중임을 언급.
- 이와 함께 사무국은 유네스코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커리어 개발임을 강조하고, 예산상의 문제, 인사 적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피력. 2018년에 정년 등으로 112개(추후 103개로 정정)의 공석이 생기는 것을 언급하며, 이런 맥락에서 정년(65세로) 연장의 연기를 요청한 것임을 강조(본 내용은 item 10.1 39C/33 and Add.에서 추후 논의되었으며, 회원국의 격렬한 토론 및 협의 끝에 사무국 안은 통과되지 못함. 상세 내용 의제 10.1 참조).
- 한국 제안에 따라 결의안 수정 후 채택(파란색 부분 추가 제안).
 - Recalling 200 EX... and 202 EX/Decision 5(IV, B).
 - 3.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pursuant to 202 EX/Decision 5(IV, B) to submit the first progress review of the updated ... as well as its Action Plan to...

의제번호	3.4(39/C INF. 24)
의제제목	잠정 예산 상한 채택 Adoption of the provisional budget ceiling

※ 본 의제는 10월 31일 오후 3시 합동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된 후 미뤄져 11월 1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논의함.

- 사무국(CFO)은 미국의 탈퇴로, 회기 두 번째 해부터 예산상한이 667백만 달러가 아닌 595.2백만 달러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지출계획 518백만 달러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함.

-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쿠바, 슬로베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오만 등 다수의 회원국은 본 의제 문서(C/14) 부재, DR이 아닌 INF 문서를 통한 승인 요청의 문제 등 사무국의 준비 부족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결의안 없이 의제를 채택할 수 없음을 피력.
- 11월 1일 오전 10시에 합동위원회 재개되었으며, 사무국은 39C/COM JM/DR.1 문서를 6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함.
-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스웨덴, 수단, 남아공은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며, 어제 긴 논의를 기진행했던 바, 본 DR을 바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 결의안 일부 수정(문구 추가) 후 채택. (스웨덴 제안)
 - 2.(b) 뒷부분에 ... **by resource mobilization 뒤에 in alignment with the 39C/5.** 추가
- 캐나다는 본 의제의 경우 절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바, 거버넌스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함. 특히, 집행이사국이 아닌 다수의 회원국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함. 캐나다, 필리핀 등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본 내용을 의장의 보고서(oral report)에 포함시키기로 함.

의제번호	9.2(39C/30 Parts I and II)
의제제목	회원국 분담금 비율 및 통화
	Scale of assessments and currency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몇몇 회원국이 미국의 탈퇴로 인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질의하였고, 사무국(CFO)은 미국이 2011년 이후 분담금을 체납 중인바, 지출계획 518백만 달러에는 영향이 없고, 미국의 탈퇴로 인한 미국 분담금 부담률을 타 회원국들이 흡수하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임을 강조. 2019년 분담금 비율에 대한 회원국의 질문도 많았으나, 이는 UN의 분담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인 바 2018년 말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Part I 및 Part II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9.4(39C/30 Part III)
의제제목	유네스코 운영 기금(Working Capital Fund)
	Working Capital Fund: level and administration

- 결의안 일부 수정 후 채택.
 - 1. Resolves 뒷부분(a)...삭제 후 새로운(a)(b)(c) 추가.

의제번호	11.1(39C/37 Part I and Part II and Add. 39C/INF.18)
의제제목	유네스코 건물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in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s Committee, on managing the UNESCO complex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5.1(39C/20)
의제제목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Governanc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 본 의제는 워킹그룹 권고사항 중 워킹그룹에서 합의에 이루지 못한 두 가지 사항(1. 집행이사국 임기 연임 제한 2. DG 선거 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한 대립으로, 총 3일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으며 11월 5일(토)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결정됨.

- 지난 총회 이후 구성된 워킹그룹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담은 의제로, 의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회원국이 워킹그룹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함.
- 특히, 의장은 본 보고가 오랜 시간,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권고사항이 많은 만큼, 본 내용을 채택하되, 워킹그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4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 포함 40여개국의 발언이 이어지며 참여한 논쟁이 시작됨.
- 모로코, 러시아, 브라질,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이집트, 스페인 등은 협의를 통한 컨센서스를 이뤄야 함을 강조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4개 내용 채택 여부를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 독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슬로베니아, 영국, 헝가리, 세네갈, 베네수엘라 등은 2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오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이미 합의된 129개 권고사항을 먼저 승인한 뒤 나머지 부분은 추가 논의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제안.
-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등 다수의 회원국은 워킹그룹의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본 워킹그룹의 권고사항들이 실행되어 유네스코 개혁에 기여해야 함을 피력.
- 에콰도르, 포르투갈, 필리핀 등은 집행이사국 임기 제한에 대해 특히 목소리를 높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4개 사항에 집중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전체 워킹그룹의 제안사항을 채택할 것을 강조함. 통가, 베닌, 니카라과도 집행이사국 임기를 제한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모든 내용에서 합의를 이루자고 주장함.

- 페루는 계속 협의에 이루지 못하면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고, 파라과이, 멕시코, 덴마크, 에콰도르, 짐바브웨 등은 투표를 해서라도 모든 권고사항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모으자고 피력.
- 브라질, 알제리는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본 의제의 부속문서(Annex)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부속문서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장함.
- 의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개 포인트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국이 컨센서스를 이뤄야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점에서 기존 워킹그룹에서 기합의된 129개 권고사항은 승인을 하는 것을 제안함. 또한 4개 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기보다는 추가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을 환기시키며,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오늘 당장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을 지적함.
- 그러나 이에 엘살바도르가 투표를 제안했고, 투표를 해서라도 결정을 하자는 의견과, 투표가 아닌 협의를 통해 모두 결정하자는 의견, 그리고 합의된 내용만 승인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
-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다양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법률자문관(legal adviser)을 초청해 의견을 들었으나, 발언신청과 논쟁이 계속되자 의장은 쿠바의 제안에 따라 금일 세션을 마무리하고, 11월 3일(금) 재개할 것을 결정.
- 그러나 11월 2일(목) 오전 세션이 시작함과 동시에 에콰도르는 11월 1일 논의 관련하여 워킹그룹의 20번 권고사항에 대한 투표를 요구한 것임을 다시 강조함. 덴마크도 11월 1일에 투표에 찬성했음을 환기시키며, 회원국의 투표권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관(legal advisor)의 확답을 재차 확인함.
- 다수 회원국의 논의가 이어지자, 팔레스타인은 15분 동안 회의를 중단하고,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의장은 이를 수락함(회의장 내에서 몇몇 회원국끼리 모여 토론 및 제안을 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25분 후 회의가 재개됨).
- 필리핀은 20번 권고(집행이사국 임기 제한)는 일종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우선 오늘 채택하고, 다만 실제 규정을 고치는 작업은 40차 총회에서 최종결정하자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
- 많은 회원국(스웨덴, 영국, 중국, 콜롬비아 등)이 투표를 하지 말자는 발언을 이어감. 의장은 합의에 거의 이르렀음을 강조하고 조금만 더 협의를 해보자고 함. 이에 에콰도르와 쿠바는 강력하게 반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남아공, 베트남 등도 투표에 동의함.
- 11월 2일 오후 3시 기준 투표권이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20번 권고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으며, 125개국 이 투표에 참여해, 103개 찬성, 12개국 반대, 10개국 기권으로 20번 권고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됨.
- 논란이 많았던 20번 문단은 회원국이 협의를 이룬 권고사항으로 포함되어 부속문서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용이 중복되는 21번 문단은 삭제되는 것으로 정리됨.
- 합의가 되지 않은 권고 52번과 53번(DG 선거 관련)은 이미 합의한 권고 134번(b)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며, 회원국들의 격렬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었고, 시간 부족으로 결정을 짓지 못함.

- 11월 4일(토) 다시 재개된 논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권고 52번과 53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부속문서 내 권고안을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됨.
 - b. ~~the two~~ outstanding recommendations ~~issues below~~ in relation to 38C/Resolution 101 ~~and the two proposals below/including/such as;~~
 - ~~The proposal that Director General~~ Following a thorough assessment....
 - ~~The proposal that~~ For the nomination of the....
- 다수의 회원국이 거버넌스 워킹그룹 권고사항을 이행해야하는 시점에 왔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이 수정됨.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part I)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제안으로 4번 문단 추가됨. 수정 없이 채택됨
 - (part II) 총회 Rules of procedure에 대한 제안(투표권 워킹그룹 일할 시간 더 필요하다는 내용임)
 1. 문단 추가함(독일 등 제안) Amendment to pharagraph 4 . 그리고 워킹그룹 6개국은 분담금을 꼭 내야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르헨티나가 제안함. 그 취지에는 많은 회원국이 동의했으나 어떤 표현을 추가하는 지에 대한 긴 논의가 이어짐. 법률자문관(legal advisor)의 추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장 추가됨.(a) The Working Group consists of six Members,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alactoral group, 뒤에 **but only from Member States whos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due, does not of the Constitution.** 을 추가.
- 결의안 채택 후 사무국은 워킹그룹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적 함의에 대한 코멘트(회의 관련 편딩 등)를 함.

의제번호	9.1(39C/29 and Add. 39C/INF.11)
의제제목	2016년 12월 31일자 재정보고 및 외부감사 보고
	Financial report and audit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ing to the accounts of UNESCO for the year ended 31 December 2015, and report by the External Auditor

- 외부감사가 직접 감사보고서 요지 설명(외부감사는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12년간의 임기 마감).
- 나이지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 다수의 회원국은 외부감사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 캐나다와 스웨덴은 현장사무고 감사보고서의 마무리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본 보고서에

- 대한 기대를 표명.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10.5(39C/45)
의제제목	의료혜택기금(MBF) 감사보고서
	Audit of the Medical Benefits Fund(MBF)

- 논의, 질의,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10.4(39C/36 Part I and Add. 39C/36 Part II and Add.)
의제제목	의료혜택기금(MBF)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state of the Medical Benefits Fund(MBF)

- 사무국(인사국장)이 주요 요지 설명(MBF 거버넌스에 대한 ILOAT 권고사항 등).
- Part I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3. Further decideds.... 뒤쪽에 **and invites the Director-General to request the Board of Management of the MBF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External Auditor as reported to the 39th General Conference** 가 추가됨(영국 제안)
 - 4. 의료혜택기금 위원회 옵서버와 대체 옵서버 결정(임기 2년): 옵서버는 말레이시아, 영국, 브라질 / 대체 옵서버는 캐나다
- Part II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8.2(39C/51)
의제제목	참여프로그램(PP) 및 긴급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원칙, 조건, 규칙
	Principles, conditions and rules for managing and evaluating activities funded under the participation programme and emergency assistance

- 한국은 국가위원회의 역량강화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현재는 폐지된 국가위원회 전체 네트워크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함을 강조함. 사무국(ADG/ERI)은 역량강화가 그 무엇

보다 중요하고 사무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특히, 한국의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 길게 언급하며 사의를 표하고, 독일위원회의 기여도 언급함. 다만, 국가위원회 전담의 경우, 현재 regional desk가 있으며, 한국에서 지적인 것처럼 국가위원회와 사무국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함.

- 모리타니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콩고 등 회원국은 참여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함.
- 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은 한국과 독일의 역량강화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세이셸과 함께 성평등 프로젝트 지원시 소녀뿐만 아니라 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발언.
- 사무국(ADG/ERI)은 SIDs 국가들 포함 회원국들에게 참여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독려함.
-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8.1(39C/42)
의제제목	운영기구(governing body)를 포함한 회원국과 NGOs간 질적 대화 제안
	Proposals for qualitative dialogue between Member States and NGOs, including within the governing bodies

- 슬로베니아, 쿠바, 폴란드,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다수의 회원국들은 NGOs와의 질적 대화가 자칫 국가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관계 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포함. 특히 슬로베니아는 현재 NGOs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교류, 협력,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미 국가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위원회가 NGOs, 클럽, 협회랑 협업하는 주체라는 것을 강조함. NGOs가 유네스코의 정책결정 등에 너무 강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포함.
- 덴마크와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본 의제를 환영함.
- 이란은 이란 내 난민 어린이 교육 기금이 NGOs들로 지원됨을 언급하며, NGOs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
- 사무국(ADG/ERI)은 이 의제가 정보를 위한 첫 보고서고, 질적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 NGO랑 국가위원회는 확실히 다름을 다시 확인하며, NGOs와 협업이 국가위원회와 늘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강조.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Having examined document 39 C/42 다음에 아래 문단 추가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governmental nature of UNESCO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commission, (아르헨티나 제안)

Recognizing the crucial role of multi-stakeholder engagement for the attain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genda 2030,(스웨덴 제안)

의제번호	4.1(39C/15)
의제제목	2018-2019 회원국 제안 유네스코 기념일
	Proposals by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celebration of anniversaries in 2018-2019 with which UNESCO could be associated

- 논의 없이,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1. 마지막에 **and by naming as priority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anniversaries their clear connection with the ideals and missions of our Organization;** 추가 (러시아 제안)

의제번호	8.3(39C/54)
의제제목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Draft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 한국, 중국, 스페인, 스위스 등 회원국은 본 프레임워크를 환영함. 특히, 스위스는 본 프레임워크가 유네스코의 파트너십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
- 사무국(ADG/ERI)은 유네스코 클럽이 일부 국가(일본, 중국,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음을 지적함. 때문에 사무국은 믿음만한 파트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파트너는 바로 국가위원회임을 강조함. 클럽 관련 개혁의 성공 사례로 코트디부아르를 소개함.
- 법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수정된 결의안 채택.
(Centres를 다 지우고, 4번 결의안의 205EX를 207EX로 수정)
- 결의안 채택 후 프랑스와 이집트는 이전 역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는 Centres를 지우지 말고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하였고, 의장은 결의안이 모두 채택된 바, 이를 의장 보고서(oral report)에 넣기로 함.

의제번호	10.1(39C/33 and Add.)
의제제목	직원 규정 및 규칙
	Staff Regulations and Staff Rules

- 사무국(인사국장)에서 핵심 요지 설명(정년연장 적용 미루는 문제와 직원선물 규정 등). 2018-2019년에 110개의 신규 포스트가 새로 생김을 강조.
- 본 의제는 논의 없이 채택하는 의제였으나, 회의 첫날 독일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언급한 바 있고, 정년 연장 적용 미루는 문제로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
- 독일은 정년 연장을 2년 미루자는 사무국 제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강하게 어필. UN직원들의 정년 연장은 이미 UN총회에서 결의된 바, UN의 결의를 따라야하며, 정년 연장이 특히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 이와 함께 2년간 정년연장을 보류할 경우, 1.6백만 달러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무국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 절감을 정년 연장 불가의 이유로 든다면, 과연 언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함.
- 멕시코, 나이지리아,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이집트도 독일 의견에 동의.
- 스웨덴은 유네스코의 재정적 어려움과 인력 정체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무국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함.
- 사무국(인사국장)은 UN 총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수석재정관(CFO)은 정년연장 연기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함.
- 한국은 비상이행 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울 만큼 사무국이 어려운 현재를 감안해 정년연장을 2년 미루는 안에 동의함. 중국과 프랑스도 동의함. 특히, 프랑스는 지금 어느때보다 유네스코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2년간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임을 강조함. 스위스, 바누아투 등도 이에 동의함.
- 네덜란드, 이집트는 사무국 정년 연장 연기 반대함.
- 수단과 가봉은 사무국의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며, 2020년 지지함.
- 독일은 사무국 제안대로 정년을 연장했을 때 경력 개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질의함. 이에 사무국은 퇴직자로 인해 생기는 공석에 내부직원들이 진출할 기회가 되는 것임을 언급. 모든 공석이 내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 또한 DG도 타운홀 미팅에서 정년 연장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자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STU도 퇴직하는 많은 직원 뿐만 아니라 현재 직원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찬성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함(이에 독일은 강하게 반박하며, STU이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고 했으나, 더 이상의 토론을 지양하자는 의장의 재량에 따라 제지됨).
- 네덜란드는 본 안건이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사무국은 직원 규칙 및 규정은 총회에서 다뤄져야하는 의제임을 설명함.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2. Decides to amend Staff Regulation 9.5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8 2020 as follows;
 - 4. Further decides that the provisions mentioned in Staff Regulation 1.6 be outlined in the gifts policy.(오만 제안)

의제번호	3.1(39C/5 and Add.)
의제제목	예산 수립 방법 및 기술
	Methods of preparing the budget, budget estimates for 2018-2021, and budgeting techniques

- 논의,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의제번호	3.2(39C/6 and Add. 39C/INF.24)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논의,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새로 추가된 UIS 관련 예산 등 새롭게 적용된 예산이 많았으며 모두 채택됨).

의제번호	9.3(39C/31 and Add. 39C/COM APX/DR.2)
의제제목	회원국 분담금 납입 현황
	Collection of Member States' contributions

- 사무국(CFO)은 총 32개국이 분담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함.
- 다수의 회원국이 비상이행 계획에 대해 우려하며, 정규 분담금의 조속 납부를 촉구함.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새롭게 제출한 DR 포함 결의안 수정 후 채택(회원국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짐).
 - (Part I)(c) UNESCO 다음 [in-line with the financing principles are...](#) 모두 빼기로

함.(c) draft guiding.... 뒤에 additional measures such as those adopted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could help to secure a renewed...를 추가

▣ 관찰과 평가

- APX 회의 기간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며 투표까지 이어진 의제는 거버넌스 관련 의제였으며(집행이사국 연임 제한 권고), 직원들의 정년 연장 관련 의제를 포함한 직원 규정 및 규칙 의제와 사무국의 준비 부족(DR 부재)으로 인해 논의가 길어진 잠정 예산상한 채택 의제 등이 집중 논의됨.
- 집행이사국 연임을 제한하는 거버넌스 워킹그룹의 권고가 채택된 뒤에는 회원국의 역량이 나 분담금 비율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SIDs 및 아프리카, 남미그룹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7.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일시 및 장소

- 10월 31일(화)~11월 1일(수) 10:00~16:30 / 유네스코본부 Room VI
- 11월 6일(월) 10:00~13:00 / 유네스코본부 Room VI
- 11월 8일(수) 10:00~10:30 / 유네스코본부 Room VI

□ 요지

- 법률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6차례 진행되었으며 △1960년 교육차별 철폐협약 및 권고, 1974년 국제이해협력 및 평화에 관한 교육과 인권 및 근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1974년 과학연구 종사자 지위에 관한 권고 등 4개 권고에 대한 회원국 이행종합보고를 검토하고 △1974년 과학연구 종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안 △유네스코 협회 및 클럽 규정 프레임워크 채택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안 등에 대한 세부조항을 상세 검토함. 아울러 행·재정·프로그램·대외관계 분과회의(APX)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관련 의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진행

□ 논의 의제

- 의장단 선출
- 의제 3.2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 의제 7.1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2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5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3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 의제 7.4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 의제 8.3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 의제 4.17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 의제 5.1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 의장단

- 의장 : Mr Pierre Michel Eisemann(프랑스)
- 부의장 : Mr Eduardo Leoni Patron Costas(아르헨티나), Mr Meshal Hayat(쿠웨이트)
- 보고관 : Ms Christine M'kwenda(케냐)

▣ 상세 내용

의제번호	3.2(39C/5 and Add. 39C/6 and Add.)
의제제목	2018-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39C/5) 검토 및 채택
	Consider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18-2021

- 사무국은 의제 관련 제출 DR 2건을 설명하고, 법적, 예산적 함의가 없으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 논의 없이 결의안 채택.

의제번호	7.1(39C/24)
의제제목	1960년 교육차별철폐 협약 및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60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사무국은 2016년 제9차 정기보고(Periodic Consultation)을 시작, 67개 국가 보고서(49개 협약 당사국)를 수령했으며, 이는 지난 회기에 비해 14.5% 증가된 수치임을 주목, 향후 2030 의제의 교육에 대한 권리 문제와 더욱 연계하여 이행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아르헨티나는 집행이사회 검토 시 문제가 없었음을 밝히고, 향후 총회에서 협약에 대한 리뷰가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발언.
- 결의안 일부 수정 후 채택.
 - 쿠웨이트가 para. 7 관련 집행이사회 차수 명기를 제안, 제197차수 삽입.
 - 스웨덴은 사무총장이 보고 결과만을 공람하는 역할만 하고 보고를 독려하지는 않는지 문의, 사무국은 다음 회기인 2019년 보고를 앞두고 집행이사회가 사무총장에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

의제번호	7.2(39C/25)
의제제목	1974년 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사무국은 2016년 제6차 보고에 2012년 대비 51% 증가된 83개국이 참여, 대부분의 국가 정책에 권고의 핵심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보고 시 교육의 질 관련 내용을 더욱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
- 아르헨티나는 평화와 국제협력, 자유로운 인권 두 가지가 있는 바, 향후 이를 구분하여 국가교육과 법률을 보고하고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이에 사무국은 SDG 4가 교육과 인권 문제, 세계시민교육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추후 보고 맥락에 더욱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다른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동 권고의 정치적 법률적 문제의 측면도 반영하겠다고 답변.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방글라데시는 para.7에 41차 회의가 총회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 반영됨.

의제번호	7.5(39C/27)
의제제목	1978년 개정 국제 교육 통계 표준화 권고 회원국 이행 종합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8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 사무국(UIS)은 2011년 동 권고안(ISCED) 수정 이후 2014년부터 회원국이 관련 수정이 있을 경우 보고함에 따라, 2017년 8월 기준 90%의 회원국이 교육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2016년에는 교육과 훈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100개국 이상의 보고를 발간하였음을 설명.
 - 방글라데시는 문서의 설명 부분 중 para 5.에서 시제적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ISCED 2011이 프로그램과 자격(programmes and qualification)을 언급하는 것이 맞는지 분류(classification)이 아닌지 질의, 사무국은 시제표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ISCED 2011은 자격을 의미한 것이 맞음을 확인.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쿠웨이트는 법률적으로 country가 아닌 state로 언급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아랍어 결의안 전체 관련 표현 수정을 요청하고,- 스웨덴은 영어표현도 수정이 필요하다 밝힌바, para. 4, para 5(a)에 반영.
- 의장은 서ams에 권고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는 의례적 문구를 삽입하고, para. 5(d)로 44차 총회에 동 의제를 보고 요청하는 문단 삽입.
- 프랑스는 states가 아닌 member states로 수정 제안.
- 방글라데시가 para 3. 2011와 2013년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programme and qualification 및 fields of education and training)을 초과하는 안 제안, 삽입됨.

의제번호	7.3(39C/26 Rev.)
의제제목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회원국 이행 보고
	Consolidate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by Member States of the 1974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 사무국은 2016년 회원국 2차 보고를 시작, 권고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0개국 회신 결과를 202차 집행이사회에 전달한바, 회원국에게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무국에 향후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지침 개발을 권고했음을 설명.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방글라데시는 권고 수정의 목표가 Intro 부분의 para. 3에 잘 설명된바, 결의안의 서언 중 5번째 문장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제안, 의장은 39C/23 삽입 반영.
 - 캐나다, 스웨덴이 권고 모니터링과 권고 수정에 대한 의견 조회는 별도로 지적하자, 의장은 권고안 내용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신규 수정안이 총회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주목하고, 일단 사무국에 권고 모니터링 실시에 사의만 표시하는 문단 삽입.

의제번호	7.4(39C/23)
의제제목	1974년 과학 연구자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 제안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1974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Scientific Researchers

- 사무국은 지난 37차 총회 이후 IBC, IGBC, COMEST 등 유네스코 주요 관계위원회와의 협의, 2016-7년 회원국 자문(44개국 회신) 등의 활동을 거쳐 권고 수정안을 도출, 2017년 5월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하였음을 설명하고 브라질, 체코, 네덜란드가 DR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힘.

- 네덜란드(옵서버)는 DR은 권고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의 설명처럼 좀 더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 러시아(옵서버)는 러시아 국내법상 맞지 않는 용어 등과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나, 의장은 러시아 버전과 관련된 DR을 SHS위원회에서 언급할 것을 제안.
- 스웨덴은 네덜란드와 체코가 제출한 DR(39C/COM SHS/DR.3)의 신규문단(para. 4, 5/ UN 이념에 맞춘 회원국들의 이행 강화, 국가위원회 및 석좌와의 협력 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지지 표시.
- 의장은 두 신규문단이 현 para.3의 내용과 일부 겹친다고 생각하나, 일단은 두 개를 모두 []으로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
- 아르헨티나는 브라질 수정안 관련(DR.4), 브라질의 설명 요청.
- 프랑스는 para.2의 불어번역 관련 일부 단어를 수정하고,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와 관련, 권고의 용어상 indigenous people and community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
- 캐나다는 para.7관련, TK holder를 Traditional Knowledge를 바꿀 것으로 제안.
- 의장은 현재까지의 사안이 법률적인 것은 아니고 기술적 사안이므로 SHS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밝힘.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아르헨티나는 para.3의 스페인어 버전에서 과학, 기술, 연구, 교육에 책임이 있는 당국과 기관(authorities and bodies responsible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nd for education)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 사무국이 회원국이 관련 당국과 기관을 확인하고 정보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답변.
 - 방글라데시는 39C/23 Annex II p.3에서는 동 authoritie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로 들어가 있는 바, 해당 문구를 활용하여 para.3의 해당 문구 수정 제안.
 - 스웨덴은 민간영역이 포함되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authorities 앞에 ‘national’을 포함할 것을 제안, 아르헨티나가 지지함.
 - 의장은 national만 삽입하고, 나머지 사안을 SHS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안, 방글라데시가 동의.
 - 체코와 네덜란드 DR(DR.3)의 para.4를 신규문단 []로 삽입하는 것 결정.
 - 아울러 DR.3의 para.5에서 future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para. 3의 bis로 제안 결정.
 - 쿠웨이트는 굳이 국가위원회와 석좌만을 언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 의장은 해당 사안은 SHS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
 - 캐나다는 브라질의 DR은 검토하지 않는지 질의, 의장은 법률적 측면에서 논의될 점은 없고, 용어 등의 문제는 SHS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상의 논의라고 답변.

의제번호	8.3(39C/54)
의제제목	유네스코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정 프레임워크 초안
	Draft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 사무국(ADG/ERI)은 1947년 일본 센다이 창립 이래 1,080여개 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유네스코 이름 및 로고 오용 등 협회, 센터, 클럽 등에 대한 활동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위원회 및 대표부와 삼자회의를 거쳐 전략을 채택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원회의 법률적 역할과 권한에 근거한 동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음을 안내.
- 문서 제목 및 기타 센터 관련 용어.
 -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센터가 없어질 것이므로 문서의 제목에서도 센터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 의장이 동의.
 - 쿠웨이트는 동 부분이 용어의 정의하는 것이고, 센터는 전환기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센터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 반영됨(2.1, 2.2, 2.3, 2.4, 4.1, 4,2(2), 5.1 등).
- 문단 2.5 관련
 - 프랑스가 2년의 전환기 관련, 센터의 경우 이미 정리대상인데 동 문구가 필요한지 문의 하자, 사무국은 2년 안에 없어질 협회와 클럽, 센터도 있으나 기 설립 기구의 경우 정리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카테고리1, 2센터 외 유네스코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센터들에 금번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향후 신규 센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부연.
 - 캐나다는 동 프레임워크의 2년 전환기 이후 사무국이 그때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프랑스는 더 이상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며 대신 전환기 종료 후 센터 폐쇄에 대한 신규 문단 제안(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two years,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ory framework will be applied to the centres.) 법률자문관은 해당내용을 문단 2.6이 아니라 센터 관련 사항으로서 문단 1.6으로 삽입할 것을 제안.
- 문단 5.1(9) 관련
 - 아르헨티나는 유네스코 로고와 협회 로고의 콤비네이션을 예시로 들면서 웹사이트 등에는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동 프레임워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사용가능여부를 확실하게할 것을 요청, 의장은 국가위원회 승인 하에 가능함을 안내. 우즈베키스탄은 어떤 기관의 경우 유네스코 로고와 이름 사용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바(9)(10)를 삭제 제안하였으나, 법률자문관은 해당 내용은(8)에 언급된 유네스코 이름 및 로고관련 규정(Directive)에 나오는 것이라고 답변. 아르헨티나는 국가위원회 승인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승인에 따라서만’(only upon the authorisation) 삽입을 제안해 반영됨.

- 문단 5.1.(8) 관련
 - 우즈베키스탄은(8)에 이름과 로고의 도용 및 오용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는 문구 추가 제안하고 쿠웨이트가지지. 베네수엘라가 국가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자, 사무국은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 우즈베키스탄 제안 반영됨.
- 문단 6.1 관련
 - 옴서버(이탈리아)가 기존 설립 국가협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사무국은 여러 국가협회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위원회가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
 - 아르헨티나는 국가협회가 설립된다면 국내법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다양하다고 발언, 의장이 동의하며 회원국이 다를 문제라고 답변, 사무국도 국가위원회가 해당 국가협회의 법적 기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문단 6.4 관련 의장이 5.1(9)와 마찬가지로 ‘only upon the authorisation’으로 수정 제안, 반영됨.
- 문단 6.6 관련
 - 영국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사용 제한도 필요한바 ‘or in social media’를 삽입 제안, 프랑스는 ‘social media accounts’로 정정 제안하여 반영, para. 5.1(10)에도 동일 적용됨.
 - 미국은 동 규정이 반영되는 기한(sunset clause)이 있는지를 질의, 사무국은 센터가 2년의 전환기 안에 정리되는 것처럼 이 규정은 예를 들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답변. 기한 관련은 ‘no longer use’ 수정 반영.
 - 옴서버(이탈리아)는 과거 채택된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클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채택되면 유네스코 이름을 빼고 어떻게 클럽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지 문의, 사무국은 변경의 필요성이 없으나, 이메일의 경우 바꾸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실무적인 사안은 이후 별도로 상세 논의할 것을 제안.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서언(6) 및 para. 1, 3, 4에서 Centres 삭제.
 - 문단 4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안에 따라 2년 전환기에 맞춰 제205차가 아닌 제207차 집행 이사회에서의 사무총장 보고 제안으로 수정.

의제번호	4.17(39C/58)
의제제목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 정관 개정 Revision of the Statutes of the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 (MOST) Intergovernmental Council

- 사무국(ADG/SHS)은 지난 3월 쿠알라룸푸르 정부간위원회(IGC)에서 정관 개정안 도출 후 제202차 집행이사회 결정에 따라 동 의제가 금번 총회에 상정되었음을 안내.
- 아르헨티나는 동 개정 작성반의 일원으로 활동했음을 밝히고 내용 도출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던바, 개정안의 원활한 채택을 희망한다 밝힘.
- 사무국(ADG/SHS)은 조항별 변동사항을 설명하고, 의장은 개정안의 법률적 측면 만을 검토할 것을 요청.
- Art. VII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언급된 기술위원회와 관련, Art. XII에 명시된 정의를 언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반영됨.
- Art. VIII 관련 우즈베키스탄은 para. 1에서 ‘among its members’를 ‘Member States’로 변경하는 것 제안하였으며 사무국은 신규 문단(para. 3)으로 ‘the terms of office for members of the bureau of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shall expire as soon as their membership of the Council expires’ 제안, 반영됨.
- Art. IX 관련 미국은 문단 4에 non-Member States, Associate Members, and Observer States of UNESCO로 추가할 것을 제안해 반영됨.
- 결의안 논의 없이 채택.

의제번호	N/A
의제제목	법률위원회 보고서 초안 검토 및 채택
	Examination and adoption of the draft reports of the Legal Committee (agenda items: 3.2, 7.1, 7.2, 7.5, 7.3, 7.4, 8.3 and 4.17)

- 법률위원회 첫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3.2) 및 두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7.1)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 법률위원회 세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7.2)은 보고관 제안에 따라 간단한 문법 수정 후 결의안 채택.
- 법률위원회 네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7.5)는 보고관 제안에 따라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 para. 3. ...and that ~~it~~ Secretariat further illustrates the measures
 - : para. 3.(a) ... to continue to provide training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to countries Member States needing assistance to adopt the ISCED revisions;...
- 법률위원회 다섯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7.3)은 결의안 수정 없이 채택.
- 법률위원회 여섯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7.4)은 결의안 수정 후 채택(sole 삭제).
- 법률위원회 일곱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8.3)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 para. 3. The Committee recalled that it fell within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e APX Commission(Finance, Administration and General Questions,

Programme Support and External Relations) to make pronouncements on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text of the draft regulatory framework annexed to document 39 C/54.

- : para. 4. Requests the Director-General to ensure that the Regulatory Cooperation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and Clubs for UNESCO
- 법률위원회 일곱 번째 리포트 초안(의제 4.17)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 para. 3. The Committee recalled that it fell within the **exclusive** competence of Social and Human Sciences(SHS) Commission to make pronouncements on the substantive aspects of the text of the Statutes of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MOST Programme annexed to document 39 C/58.
- : Annex para. 8. 3.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Bureau-Council** shall expire in any event upon expiry of their term of office in the Intergovernmental Council.

의제번호	5.1(39C/20 and Add.)
의제제목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거버넌스, 의사절차 및 업무방식 Governance, procedures and working methods of the governing bodies of UNESCO

- 의장은 APX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동 의제의 부속문서(거버넌스 워킹그룹의 권고사항)이지만, 법률위원회에서는 결의안에 집중할 것임을 설명.
- 결의안 수정 후 채택.
 - (Part I) 2. Endorses.. **[as amended]**(APX에서 수정된대로 []없이 채택됨)를 포함 APX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채택함.
- 스웨덴은 APX위원회에서 이미 사무국이 지적했듯 동 의제에 재정적인 함의가 없음을 질의했으나, 의장은 지금 시점에서 해당 이슈를 법률위원회에서 다룰 이유는 없다고 발언.
- 아르헨티나는 결의안이 구체적인 사안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para. 3에서 집행이사회 사무총장, 여러 거버닝 기구가 워킹그룹의 권고사항 이행을 해야 하는 바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결의안 채택.
 - 총회 투표권과 관련된 절차규칙과 관련(Rule 82) 결의안 상당부분 수정 후 채택. 과테말라는 본 결의안 내용이 APX회의에서 법률자문관이 제안한 문구임을 지적하였으나, 의장은 모두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며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
 - : 초안에서 **but only from Member States whos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due does not exceed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payable by them for the current year and the immediately preceding calendar year and provided by article IV para C.8(b) The Members shall have a term of four years, half of them shall be replaced at each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부분 삭제

: 세부 문단(a)(b)(c) 추가

- (a) Member States shall address their communications invok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IV.C, paragraph 8(c), to the Director-General, who shall transmit them to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That Commission shall take up the matter at the commencement of its work and issue in plenary meeting, as a matter of priority, a report and recommendations on the subject.
- (b) For this purpose,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shall establish a working group on contributions. The working group shall consist of six members,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electoral group. Upon the first meeting of this working group, none of its members should be in a position to be deprived of their right to vote under Article IV.C, paragraph 8(b), of the Constitution.
- (c)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shall be four years. Half of the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shall be replaced at each 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Transitional provision:

On the first election of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half of them, designated by drawing lots, shall only serve a term of two years.

▣ 관찰과 평가

- 법률위원회는 주요 법률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의제를 해당 분과회의 개최 전 미리 검토함으로써 의제 논의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방지하고, 필요 시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며, 법적 사안뿐만 아니라 관련 주요 논의 내용도 공유되는 바, 사전 동향 파악에도 좋은 참고가 됨.
- 향후 법률위원회의 기능과 중요성을 감안, 한국의 지속적인 옵서버 참여 고려 가능.

IV 주요 선거 결과

1. 집행이사회 선거 결과

- **일시:** 11월 8일(수), 지명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 **선거결과**
 - 그룹 I(서유럽·북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 그룹 II(동유럽):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브라질, 쿠바, 그레나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베네수엘라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베트남
 - 그룹 V(a)(아프리카): 부룬디, 카메론, 코트디부아르, 기니공화국, 에티오피카, 가나,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짐바브웨
 - 그룹 V(b)(중동):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오만, 카타르, 수단
- ※ [참고] 집행이사회 의장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제203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선출된 바 있음. 임기는 2017~19년임.

2.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선거 결과

- **일시:** 11월 9일(목)
- **2017년 한국 선출 위원회**
 -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임기 2017~2021년
 - 국제수문학프로그램 정부간위원회(IHP): 임기 2017~2021년
 - 본부위원회(HQ): 임기 2017~2021년

※ 2017년 12월 현재 한국은 금번에 선출된 상기 3개 위원회 포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임기 2015-2019) △국제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조정위원회(임기 2015-201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임기 2017-2019)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임기 2015-2019)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임기 2013-2017)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임기 2014-2018) 등 총 8개 위원회에서 위원국 및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프랑스, 영국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페루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쿡아일랜드
 - 그룹 V(a)(아프리카): 베닌, 케냐
 - 그룹 V(b)(중동): 리비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 **본부위원회(Headquarters Committee)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네덜란드, 스웨덴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세인트빈센트 그레네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대한민국,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 그룹 V(a)(아프리카): 앙골라, 베닌, 케냐
 - 그룹 V(b)(중동): 모로코, 팔레스타인
-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신규 위원국**
 - 그룹 II(동유럽): 슬로베니아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카자흐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 V(b)(중동): 카타르
-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IFAP) 정부간 위원회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스위스, 터키

- 그룹 II(동유럽): 헝가리, 리투아니아,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자메이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북한
 - 그룹 V(a)(아프리카): 말리, 니제르,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 V(b)(중동): 바레인, 오만
- **국제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조정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 그룹 II(동유럽): 에스토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이티, 멕시코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호주, 베트남
 - 그룹 V(a)(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 V(b)(중동): 오만, 수단, 아랍에미리트
- **국제 수문학사업(IHP) 정부간위원회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네덜란드, 터키, 영국
 - 그룹 II(동유럽): 슬로베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칠레, 파라과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대한민국, 이란, 일본, 스리랑카
 - 그룹 V(a)(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잠비아
 - 그룹 V(b)(중동): 이집트, 리비아
- **불법소유문화재 반환 촉진위원회(ICPRCP) 신규 위원국**
 - 그룹 II(동유럽): 아르메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대한민국, 북한, 파키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베닌, 말리
 - 그룹 V(b)(중동): 이라크
-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 위원회(IPDC)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스웨덴, 영국
 - 그룹 II(동유럽): 리투아니아,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산,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팔라우, 태국
 - 그룹 V(a)(아프리카): 베닌, 나미비아

- 그룹 V(b)(중동): 리디아, 사우디아라비아
- **사회변동관리(MOST) 정부간위원회신규 위원국**
 - 그룹 II(동유럽): 체코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그룹 V(a)(아프리카): 베닌,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 그룹 V(b)(중동):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정부간 생명윤리위원회(IGBC)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프랑스, 독일, 영국
 - 그룹 II(동유럽): 아제르바이젠, 헝가리, 리투아니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에콰도르, 우루과이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싱가포르
 - 그룹 V(a)(아프리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나미비아, 니제르
- **체육 교육 및 스포츠 정부간위원회(CIGEPS) 신규 위원국**
 - 그룹 I(서유럽·북미): 핀란드, 독일
 - 그룹 II(동유럽): 러시아
 - 그룹 III(중남미·카리브해): 아르헨티나,
 - 그룹 IV(아시아·태평양): 일본, 투르크메니스탄
 - 그룹 V(a)(아프리카):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그룹 V(b)(중동): 바레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 **유네스코 통계국(UIS) 운영이사회**
 - Mr Marat Kozhakhmetov(카자흐스탄)
 - Mr Sobe도 A. Almkhaizim(쿠웨이트)
 - Mr Dankert Vedeler(노르웨이)
-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responsible for seeking the settlement of any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Ms Eliane Chahounka(베닌)
 - Mr Francesco Margiotto-Broglio(이탈리아)
 - Mr Habibou Abarchi(니제르)

- **Exev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lvilization in Cairo**

- 그룹 I(서유럽·북미): 벨기에
- 그룹 II(동유럽): 체코, 세르비아
- 그룹 V(a)(아프리카): 부룬디, 니제르
- 그룹 V(b)(중동): 이집트, 수단

- **외부감사**

- Mr Michael Ferguson(캐나다)

V 기타 회의 및 행사 결과

1. 제4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4th Interregional Meeting of National Commissions for UNESCO)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09:30~17:30 / 유네스코본부 Room XI

▣ 요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과 활동에 있어 국가위원회의 역할 강조.
 - 여러 국가위원회들의 SDGs 관련 활동이 공유되었으며, 스위스국가위원회가 한국을 포함 6개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VINCI(국제협력에서의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연구사업이 소개됨.
-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국가위원회 간 협력 필요성 증대.
 - 국가위원회마다 조직/구성이 상이하여 역할 수행에 제한이 있는 바, 이를 위한 사무국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다수 요청됨.
 - 사무국의 국가위원회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독일과 한국위원회의 선도적 지원에 사무국과 많은 국가위원회가 사의를 표시함.
- 차기 5차 회의는 2018년 6월 26-28일 케냐에서 개최 예정.
 - 세부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해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작업반 구성 예정.

▣ 논의 의제

- **개회** :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사무국 개회사(ADG/ERI)
- **의제1** : SDG 4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경험과 노력 공유

- **의제2** : 유네스코 프로그램 조정과 사무국 및 국가위원회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
- **의제3** : 유네스코 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 **의제4** : 국가위원회와 지역사무소 간 효율적 협력 증진
- **폐회** : 사무국 폐회사(DG), 의장 폐회사

▣ 의장단 선출

- **의장**: Mr James Bridge 유네스코영국위원회 사무총장

▣ 상세 내용

개회	회의 개회
	Opening of the meeting

• 의장단 선출

- **의장**: Mr James Bridge 유네스코영국위원회 사무총장.

• 의제 채택

- 국가위원회 대상 온라인 사전 설문을 통해 선정된 4개 의제 소개 및 채택.
-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 의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 할애를 위해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됨을 안내.
- Mr Eric Falt 대외협력공보섹터 사무총장보(ADG/ERI) 개회사를 통해 금번 국가위원회 총회에 120개 회원국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위원회의 지원으로 4개 언어 통역과 2차례의 예비회의가 개최되었고, 터키위원회가 금일 저녁 리셉션 개최를 지원했음에 사의를 표함. 국가위원회와 사무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액션플랜이 2013년 채택된 이래, 연례 국가위원회 활동보고서가 4권 발간되었으며(금년 말 온라인 발간), 총회도 4차례 개최됨(내년 케냐 개최). 북-남-남 국가위원회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및 한국위원회가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다른 국가위원회와 활발히 협력 중임. 참여사업(PP)은 유네스코 우선순위인 아프리카와 양성평등 지원이 각각 35%, 25%로 증가되었으며, 펠로우십도 중국, 일본, 폴란드, 러시아, 한국 등의 지원으로 지난 8년 간 매년 45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음.

의제제목	SDG 4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경험과 노력 공유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s, mainly SDG 4 through sharing of experiences, and other endeavours

• **Mr Jean-Yves Le Saux 전략기획국장(DIR/BSP) 발표**

- 2030 의제는 국가적 이행(national ownership)이 핵심인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유네스코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분야 간 협력 등을 통해 SDGs의 여러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SDG 4, 5, 6, 9, 11, 13, 14, 15, 16 등 9개 SDG 목표에 대한 유네스코의 주안점과 기여 방안, 유엔과의 협력 현황 등을 설명하고, 현 재정위기 하에서의 어려움과 그 타개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

• **Ms Anna D'Addio, 글로벌교육모니터링보고(GEM Report)팀 선임정책분석관 발표**

- SDG 4 세부목표 이행 모니터링과 관련, 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 문제를 상세 설명함.
- 책무성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곳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먼저 정부가 나서 신뢰 가능한 교육계획과 투명한 예산 수립,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

• **전체 토론**

- 독일은 전략기획국장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협력 요청과 관련,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였음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그에 대한 사무국 답변을 요청. ~Le Saux 전략기획국장은 국가위원회의 국내 지표개발, 모니터링 참여 및 다른 국가위원회와의 지역(간) 회의개최 등을 제안하며, SDGs가 국가위원회의 역할에 여러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
- 핀란드는 NGO, 시민사회, 기업 등 정부 외 네트워크가 SDGs 이행에 큰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위원회가 네트워크 조정 역할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자국 내 평화, 사회변화와 관련된 ICT 프로그램을 혁신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시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소개.
- 카타르는 글로벌모니터링과 책무성 이슈와 관련,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하는 한편, 카타르 국가위원회가 여러 파트너를 참여시키고 SDGs와 국가목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
- 아랍에미리트는 SDGs 이행 관련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이사회를 운영 중임을 소개하고, 사무국이 SDGs 이행모니터링 모범사례를 공유해주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밝힘. 이에 D'Addio 선임분석정책관은 책무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다양한 역할로서 SDGs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모범사례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보가 있으므로 향후 별도 문의를 요청.

-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위원회 간 회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 내 이행계획 수립 등을 위해 12월 고위급 회의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
- 덴마크는 SDGs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하며, 국가위원회로서도 SDGs가 유네스코의 가치와 이념을 더욱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됨을 강조하고, 자국 내 여러 인식제고 활동을 소개.
- 쿠바는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편교육과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자국의 이행 전략과 내용이 차주 고위급회의에서 교육부 장관 참석 하 공유될 것임을 안내.
- 스위스는 독일,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한국, 영국 등 7개국 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VINCI(국제협력에서의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연구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석좌와 세계유산과 같은 유네스코 사업이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SDGs에 기여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내년 초 공유될 것임을 안내.
- 한국은 국가위원회가 SDG 4 관련 정보공유와 확산, 여러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회의를 조직하여 조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은 국가위원회가 국내 조정자로서 활동하며 국내 우선순위 수립 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소개.

의제제목	유네스코 프로그램 조정과 사무국 및 국가위원회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
	Strengthening the role of NatComs in coordinating UNESCO programmes and expanding their cooperation with HQ and other NatComs

• **그리스 국가위원회 발표**

- 2013년 독일위원회 제안으로 41개 유럽 국가위원회 간 비공식 협력 채널로 만들어진 유럽 국가위원회 네트워크 소개.
-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여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15년 독일, 2016년 폴란드, 2017년 그리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와 협력 확대, 청년 참여 등에 대한 공동비전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고,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지역 국가위원회들도 유사한 협력을 통해 유네스코 활동 참여와 협력 확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체 토론

- 독일은 조금 전 SDGs 이행 관련 의제에서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제안이 여전히 없었음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차기 케냐에서의 국가위원회 총회 시 이를 상세 논의할 것을 희망, 이탈리아가 지지.
- 캐나다는 지역대표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을 포함한 차기 본회의 의제 선정을 제안.
- 슬로베니아는 작업반 구성을 지지하는 한편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된 유럽지역 청년포럼을 소개하고 청년 관련 의제도 차기 총회에 포함할 것을 제안.
- 케냐는 5차 총회가 2018년 6월 26-28일에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의제 선정을 위한 작업반 운영을 지지하는 가운데 SDGs 관련 국가위원회 역할과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적/재정 자원 확보 문제 등을 주목하고, 유럽 국가위원회 네트워크의 상시 운영 현황을 문의. 이에 그리스는 해당 네트워크가 유럽 지역사무소인 베니스사무소와의 협력 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비공식 네트워크임을 밝히고, 양자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변.
- 뉴질랜드는 파트너십 확대에 있어 국가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최근 자국의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MOW사업, 지질공원사업 등을 시작했음을 소개.
- 영국은 VINCI 연구사업에 대한 스위스의 발언과 유럽 네트워크 회의에 대한 그리스의 발언에 사의를 표시하고, 국가위원회가 SDGs 이행에 가지는 특별한 역할과 기여에 주목, 여러 국가위원회들이 유네스코 지정 유산과 같은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더욱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발언.
- 자메이카는 사무총장 오리엔테이션 등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위한 사무국의 계획 질의. 이에 Falt 사무총장보는 재정위기 이후 국가위원회 역량강화지원 예산이 과거 1.2백만불에서 현재 14만불까지 감소되었음을 밝히고, 사무총장 오리엔테이션 사업은 그 실효성과 형식 등에 대해 여러 비판이 존재했던바,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
- 헝가리는 역량강화지원과 관련, 유네스코의 홍보자료(안내서, 보고서 등)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국가위원회 지원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밝힘.
- 아르헨티나는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현재의 예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
- 슬로베니아는 국가위원회 간 서로 역량강화지원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 이에 Falt 사무총장보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유네스코 관계 정부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는 가운데 유네스코 관련 기본 자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쟁을 겪은 국가로서 다른 나라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시 비자가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던바, 그에 대한 다른 국가위

원회들의 협조와 관심 요청.

- 아제르바이잔은 국가별로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는 국가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힘.
- 방글라데시는 국가위원회 간 법적, 행정적, 인적, 재정적 차이와 관련, 국가위원회의 기본 구성과 조직에 대한 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동 의제를 차기 본회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부르키나 파소는 1인 국가위원회로서 유네스코 사업 참여는 물론 적절한 정보 수령 역시 어려움을 밝히고, 사무국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
- 이란은 국가위원회 역할 확대에 있어 기본적 역량강화에 대한 사무국 지원의 필요성 언급.
- 말타는 1인 국가위원회로서 국가위원회 조직과 역할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지원 요청.
- 스페인은 유럽 국가위원회들도 인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국가위원회의 기본적 조직과 구성에 대해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말라위는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할 확대를 위한 사무국의 가이드라인 요청.
- 남미비아는 독일위원회의 지원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활동 액션플랜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최근 기록유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았음을 공유.
- 쿡아일랜드는 사무국의 역량강화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된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되었음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활동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의 주요 결과 회람을 요청.
- 통가도 한국위원회와 APCEIU, ICHCAP 등 한국의 여러 기관이 제공한 역량강화 기회에 사의를 표하고, 태평양 국가위원회가 대부분 파트타임 사무총장 하에 운영되고 있는 바, 각 정부가 유네스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국의 서한 발송 등의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집행이사회에 태평양 지역이 대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
- 우간다는 독일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국가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으며,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우간다의 협력 의지를 밝힘.
- 모잠비크는 사무국의 지원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고, 독일위원회의 지원으로 MAB에 처음 지원할 수 있었음에 사의 표시.
-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유네스코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차기 총회의 의제를 위한 작업반 참여 의사 밝힘.
- 필리핀은 UNITAR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자국의 정책으로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위원회가 자국 정부와의 관계정립부터 어려움이 있기도 함을 소개.

- 덴마크는 최근 레바논과 학교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협력을 증진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국가위원회는 모두 같은 형태이기 어려우나 자국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독일은 국가위원회 역할이 1978년 현장에 잘 명시되어 있으나, 덴마크의 발언처럼 국가위원회 역할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
- 터키는 향후 국가위원회 총회에 구체적인 국가위원회 간 사업협력에 대한 논의도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히 MOW, MAB,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프로그램 조정과 참여에 국가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의제제목	유네스코 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Associations, Centres and Clubs for UNESCO

• 사무국(ADG/ERI) 의제 소개

-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APX) 분과회의 의제(39C/54)로 논의될 동 의제는 유네스코 협회, 센터, 클럽 관련 규제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음.
- 일본, 중국, 한국,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들의 모범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네스코의 이름, 로고가 남용되고 있는 바, 금년 5, 6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로써 카테고리 1, 2센터 등 여러 유네스코 센터 활동 규정의 관련 내용과도 더욱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 전체 토론

- 멕시코는 WFUCA(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및 여러 유네스코협회의 활동이 최근 유네스코 이념에서 멀어지고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금번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불량 협회 퇴출 등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과 권위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프랑스는 지난 두 차례 협의 회의에 참여한 국가로서 국가위원회 고유 역할 강화를 위한 동 초안 지지 표시.
- 일본은 200개 이상의 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고 있었던 만큼, 그 자율성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동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경계.
- 독일은 동 규정을 환영하는 가운데, 자국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APX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밝힘.
- 쿠바도 규정을 환영하고 국가위원회 역할 강화 기여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 가운데, 유연

- 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
- 스페인은 협회 자격 유지를 위한 2년간의 시험기간 도입에 관한 규정(2.5), 정치적 발언 금지 규정(5.1)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안내.
 - 그리스는 자국 내 협회 활동 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가로서 금번 규제 초안을 지지하고, WFUCA 활동 관련 작업반 구성을 제안.
~Falt 사무총장보는 제안을 환영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
 - 이탈리아는 자국 내 150개가 넘는 협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는 국가 위원회가 유네스코 이름과 로고의 사용과 관련 법률적 개입을 해야 할 때도 있음을 공유.
 - 에스토니아는 협회 중 이미 유네스코 이름으로 등록한 곳이 많으며, 이를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개정토록 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바, 문제해결을 위한 사무국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요청. 이에 Falt 사무총장보는 사무국이 국내적 법적 사안에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변.
 - 독일은 유네스코 외부감사 보고서에서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사용과 관련 사무국 본부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한 사무국 답변 요청. 이에 Falt 사무총장보는 해당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하나, 사무국으로서는 국가위원회의 고유 역할을 제한하고 직접 수행할 의도와 여력이 없음을 안내하고, 해당 권고는 가이드라인 강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답변.

의제제목	국가위원회와 지역사무소 간 효율적 협력 증진
	Promoting efficient interaction between NatComs and UNESCO Field Offices

• **Mr Axel Plathe, 현장지원 및 조정과장 발표**

-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개혁과 관련, 유네스코는 2009년 탈중심 국가이행기준을 채택한 이래(2011년 수정안 채택), 2016년 개혁 목표와 지역사무소 설치 기준 원칙을 도입했으며, 이에 대해 2018년 집행이사회에서 현장네트워크 분석결과가 논의될 예정임.
- 지역사무소 개혁은 2030 의제, 유엔 개발체계, 감사 및 평가 권고 등의 기준으로 진행 중임.

• **지역사무소장 발표**

- **나이로비 사무소:** 국가위원회 협력과 관련 본부 사무국이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 내 국가위원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SDGs 이행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을 소개.
- **뉴델리 사무소:** 8월 말 인도 국가위원회와 함께 6개 남아시아 국가위원회를 초청하여 사무총장 자문회의(DG Consultation Meeting)를 개최하였음을 소개하고, 국가위원회가 정보에서 많이 소외되어 네트워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특히 주목, 온/오

프라인 정기회의 개최, SDGs 이행 등과 관련된 역량강화 지원, 공동자금조달 활동 등을 제안. 이에 의장은 부적절한 유네스코 네트워크 운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이에 뉴델리 사무소장은 ASPnet, 카2센터 등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고민을 의미한다고 답변.

- **킹스턴 사무소:** 청년 참여와 역량 개발,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이니셔티브 등과 같은 카리브해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무소 활동과 국가위원회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
- **알마티 사무소:** 2014년 첫 중앙아시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역 내 행사에 서로 정기적으로 초청함으로써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무소가 없는 국가의 경우 국가위원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

● 전체토론

- 이집트는 아랍지역 내 지역사무소와 국가위원회가 소지역별로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 공동 협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SDGs 이행과 같이 유네스코의 핵심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밝힘.
- 파키스탄은 뉴델리 사무소의 행사에 파키스탄만 초청받지 못한 데에 대한 지역사무소의 설명 요청. 이에 뉴델리 사무소장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테헤란 사무소 하에 소속되어 있다고 답변.
- 한국은 유네스코 이념의 국가적, 지역적 실행에 있어 지역사무소가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방콕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소개, 특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RI 뉴스레터에 지역사무소 뉴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 마지막으로 최근 수장을 잃은 방콕사무소에 대한 애도 표시.
- 수단은 200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지역사무소를 통해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확산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소개하고, 스위스국가위원회 지원을 통해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하 청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음에 사의를 표시.
- 기니는 유네스코가 국가위원회 없이 가시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동시에 지역사무소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됨을 밝히고, 최근 자국에서 있었던 세계 책의 수도 관련 행사를 그 예시로 소개.
- 자메이카는 국가위원회 역할이 국가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사무소가 그러한 역할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우루과이는 최근 남미에서 문화재불법거래와 같은 지역 내 우선과제를 지역사무소와 공유하고 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 부족 문제는 협의하여 해결한 사례를 공유.
- 대외협력공보 부분 부국장은 지역사무소 지원과 관련, 최근 개최된 지역(간)회의가 지역사무소와 국가위원회는 물론 국가위원회 간 협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unesco.int 웹사이트에 여러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독일과 한국위원회가 제공해준 수많은 협력에 사의를 표시.

의제제목	폐회
	Closing of the meeting

● **사무국(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폐회사**

- 유네스코 사무국과 국가위원회 간 협력에 대한 2013년 권고를 바탕으로, 매년 총회의 개최, 연례보고서 발간, 집행이사회 계기 회의 개최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음을 소개.
- 국가위원회의 고유한 역할은 SDGs 이행과 같은 유네스코 역할 강화와 확대에 핵심적이며, 동유럽, 북유럽, 중미 등 소지역 국가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위원회 간 협력이 북-남-남 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8년 간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국가위원회 역할에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바, 금번 총회에도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 이에 슬로베니아는 국가위원회를 대표하여 그간 사무총장의 지지에 깊이 감사하다고 발언.

● **의장 폐회사**

- 금번 회의가 타 지역의 국가위원회를 만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참가 국가위원회들의 열띤 토론에 사의를 표함.
- 차기 총회의 의제준비를 위한 작업반 구성과 관련, 캐나다위원회에 연락하여 후속조치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 이에 아태지역에서는 부탄, 방글라데시, 한국, 뉴질랜드, 쿡아일랜드가 참여 의사를 표시함.

■ **관찰과 평가**

- SDGs의 국가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파트너로서의 국가위원회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사무국의 구체적 지원은 미흡.
- 국가위원회 지원예산의 급격한 삭감으로 인해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독일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국가위원회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사업 확대 고려 가능.
- 금번 총회 채택 예정인 규제 프레임워크(39C/54)에서 논의 결과에 주목하고, 향후 유네스코 명칭 및 로고의 오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는바,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국내 관련 기관에 적절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교육 2030 고위급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01일(수) 15:00~18:00 / 유네스코본부 Room II

▣ 참가자

- H.E. Jean-Michel Blanquer(프랑스 교육장관) 등 회원국 교육장관 및 차관, Mr Dankert Vedeler(교육 2030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Mr Qien Tang(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Mr Manos Antoninis(GEM Report 국장) 등

▣ 핵심요지

- SDG 4-교육 2030 이행에 있어서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관한 장관 패널 토론.
 - 교육 장관들은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향후 교육 2030 의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
 -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와 더불어 민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책무성을 가져야 하고, 책무성이 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함.
- 책무성이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국내 자원 마련에 있어서도 교육계획 반영,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평가 및 규제 시스템 강화,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정보 공유,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 상세 내용

- **Mr Dankert Vedeler(교육 2030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인사**
 - 글로벌, 국가적 수준에서의 SDG 4-교육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책무성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정부의 책무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더불어 시민사회, 교사와 교육가, 그리고 학생, 학부모 모두의 참여와 공동의 책임이 필요함. 동시에 민간 기업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들의 교육재정 지원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 2030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책무성과 투명성, 참여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 Report)에서 책무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Mr Manos Antoninis(GEM Report 국장) 발제**

- 교육의 효과는 책임을 공유하는 것임. 즉 책무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함. 여러 이해관계자의 책임, 즉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정부, 국제사회(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책무성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책임에서 시작됨. 정부는 1) 권리형성을 위한 참여의 장을 만들고 2) 투명한 재원을 통한 신뢰할 만한 교육정책을 기획하며 3)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형평성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규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4)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시스템도 활용해야함.
- 책무성 강화 환경구축: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역량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즉, 누구나 책무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패널토론 1	책무성-다양한 접근
---------------	------------

• **사회자:** Mr Andreas Schleicher(OECD 과학기술국장)

• **패널**

- H.E. Ms Sanni Grahn-Laasonen(핀란드 교육부 장관)
- H.E. Ms Mailis Reps(에스토니아 교육부 장관)
- H.E. Mr Roberto Iván Aguilar Gómez(볼리비아 교육부 장관)
- H.E. Mr Chen Baosheng(중국 교육부 장관)
- H.E. Mr George Kronnisanyon Werner(라이베리아 교육부 장관)
- H.E. Mr Sabri Saidam(팔레스타인 교육 및 고등교육부 장관)

• **패널 주요 발언**

- **Mr Andreas Schleicher(OECD):** 책무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줌. 교육기회는 증대되었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이에 못 미침. 책무성은 교육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이 중요함. 교육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의 의지와 이행 노력이 요구됨.
- **H.E. Ms Sanni Grahn-Laasonen(핀란드):** 양질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정치가, 교사, 학부모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됨. 책무성에 대한 주요 접근은 이러한 모든 행위자(all actors)들의 관심을 토대로 하는 것임. 외부의 신뢰할만한 규제 매커니즘, 청소년의 참여, 연구를 통한 평가 등도 필요하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문화(Culture of trust)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신뢰가 책무성을 갖도록 함.

- **H.E. Ms Mailis Reps(에스토니아):** 책무성은 가르치는 단계(교실)에서의 자율성 (autonomy)을 갖는 것임. 즉, 학교의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부로부터의 책무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부모,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갖는 것임. 학교 수준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한데, 교사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함. 정부의 책무성이란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임. SDG 4-교육 2030과 국가교육정책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함. 미디어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함.
- **H.E. Mr Roberto Iván Aguilar Gómez(볼리비아):** 모든 섹터에 책무성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남미 및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SDG 4에 관한 지역차원에서의 회의를 가지는데, 모든 영역에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도전과제가 많음. 인천선언과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평가 및 후속작업이 중요함. 이를 위해 올해 개최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회의에서 향후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했음. 평가와 모니터링 강화, 모든 영역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시스템 마련 등 주요 결정사항 채택함. 재정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요구됨. 남미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양성이 높음. 다양성을 존중하고, 글로벌 의제와 연계하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과의 접근 및 학제적인 접근도 중요함.
- **H.E. Mr Chen Baosheng(중국):** 2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책무성을 강화하는 매커니즘 구성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assessment system)을 만드는 것임.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교육 책무성이 중요하게 강조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의회 차원에서 통제와 평가를 하며, 이를 위한 매커니즘을 수립함. 교육부는 독립적인 교육평가시스템이 있으며, 지방정부도 평가/검열 시스템(inspection system)이 있음. 또한 독립적인 외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있음.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화(good standard) 및 증거기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를 위한 책무성이 중요함. 교사들이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함.
- **H.E. Mr George Kronnisanyon Werner(라이베리아):** 14년간의 전쟁과 민주 선거를 통해 교육개혁이 있었음. 에볼라 발생 후 유아, 초중등 분야 교육계획(blue print)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함. 책무성은 범분야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함. 즉, 정부는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음.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함. 책무성 매커니즘이 작동하려면, 파트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
- **H.E. Mr Sabri Saidam, Minister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책무성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교육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주요 토론

- **네팔**: 정부가 SDG 4를 교육목표로 채택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역량강화도 요구됨.
- **사이프러스**: 2015년에 향후 3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교육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예산 계획도 수립함. 데이터 수집 또한 투명해야 하며, 정책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책무성이 중요함.
- **카자흐스탄**: SDG 4 이행을 위한 3가지 우선과제(초등교육 달성, 기능문해/교사들에게 자유를 부여, 모든 학생의 카자흐탄어, 러시아어, 영어 배우기)가 있음.
- **쿠웨이트**: 양질의 교육, 독립기관을 통한 교육평가, 교사의 역량강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책무성이 중요함.
- **나이지리아**: 책무성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 설정. 모든 교육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부 교육계획에 SDG 4 연계
- **카타르**: 교육 거버넌스에 책무성을 강화하고, SDG 4 평가 및 이행 계획 마련
- **그리스**: 헌법에 포용성(inclusive)이 규정되어 있음. 의무교육을 유아로 확대하고, 직업 기술교육과 고등교육도 강화함. 교육은 공공재이며, 교육시스템에서부터 책무성이 강화되고, 중앙 및 지방정부,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무성 강화에 참여
- **노르웨이**: 교육 재정 GDP 대비 2배 증가(4%→8%).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훈련(in-service)이 강화되어야 함.
- **라트비아**: 시스템적인 책무성이 필요함. 정보 접근성에서의 투명성 필요.
- **Education International**: 교육 책무성은 정부에서 시작. 교육 자유권을 보장하고, 정부는 교사,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함.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학문의 자유, 상호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정리(사회자)

- 모든 국가가 SDG 4를 교육정책 계획 시 기준으로 삼고, 증거기반에 투자하고, 책무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모든 당사자 스스로의 일로 여기며, 개별적인 성과와 더불어 집단적인 성과를 모을 필요성이 있음.

패널토론 2

교육 재정에서의 책무성

- **사회자**: Ms Alice Albright(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CEO)

• 패널

- H.E. Mr Sébastien Proulx(캐나다 퀘벡 교육·여가·스포츠부 장관 겸 가족부 장관)
- H.E. Dr Maja Makovec Brenčič(슬로베니아 교육·과학·스포츠부 장관)

- H.E. Ms Cira Piñeiro Alonso(쿠바 교육부 차관)
- H.E. Mr Henry Puna(쿡 아일랜드 총리 겸 교육부 장관)
- H.E. Mr Lazarus Dokora(짐바브웨 초중등교육부 장관)
- H.E. Dr Ahmed bin Mohammed Al-Issa(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 H.E. Mr Nurul Islam Nahid(방글라데시 교육부 장관/E-9 그룹 대표)

● **패널 주요 발언**

- **H.E. Mr Sébastien Proulx(캐나다 퀘벡):** 책무성은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함. 퀘벡 주정부의 예를 들면, 주정부 교육장관이 자체 재정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할 장관이 재정을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함. 인천선언에 기반하여, 교육 재정 할당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H.E. Dr Maja Makovec Brenčič(슬로베니아):** 책무성은 공공자금의 투명성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짐. 즉, 교육재정 보고가 중요함. 재정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신뢰성을 증대해야 함. 또한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하고, 재정 정책을 연구하면서 정책결정자가 국가차원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H.E. Ms Cira Piñeiro Alonso(쿠바):**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GDP의 13% 교육재정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 정부 예산의 23%가 교육예산임. 각 주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SDG 4 달성을 위한 문해 프로그램인 'Yes, I Can' 지속 시행 중.
- **H.E. Mr Henry Puna(쿡아일랜드):** 상호 책무성이 중요함. 교육 2030을 넘어선 교육 관점에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고립된 학교들이 많은데,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증거기반 유효 데이터 수집이 중요함. 재정관리 시스템 마련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풀뿌리 차원에서의 오너십도 중요함.
- **H.E. Mr Lazarus Dokora(짐바브웨):** 교사의 역량강화, 인프라 지원, 재정마련 매커니즘 구축, 증거기반 데이터 수집 개선이 주요한 성공요인임.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도 90%의 높은 문해율을 보임.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중요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재정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GPE,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과의 합동 모니터링도 필요함.
- **H.E. Dr Ahmed bin Mohammed Al-Issa(사우디아라비아):** 교육 2030 비전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재정의 투명성이 강조됨. 대학 및 다양한 교육기관들의 다양성에 따라 책무성을 강조함. 책무성은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모두에 기반해야 함.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재정이 요구됨.
- **H.E. Mr Nurul Islam Nahid(E-9 그룹 대표/방글라데시):** 재정은 SDG 4-교육 2030 달성을 위해 극히 중대한 것임. E-9 국가들은 재정증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 자원을

모이고 있음. 재정개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정 투자도 중요함. 그러나 중간소득 국가들의 재정 취약 등 재정의 갭도 우선 과제임. 현재 ODA 재원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donor 국가들이 GDP의 0.5%까지 증가해 주길 바람.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의 책무성을 높여주길 바람.

● **주요 토론**

- 주요 군소도서국들은 한정된 재원과, 전문가의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 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군소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아프카니스탄은 재정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과 감독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칠레는 교육재정을 위한 세금개혁과 함께 재무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음을 밝힘.
- GCE: 국내재정과 국제재정 모두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정과 규제 매커니즘이 필요함. 도너의 경우 이러한 것을 우선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책무성이 주류가 되어야 할 것임.

● **정리(사회자)**

- 교육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재정지원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주길 바라며, 언론도 이러한 위기에 함께 대응해 주길 바람. 책무성은 다른 렌즈로 보아야 함. 교육에 배정하는 자원은 절실한 사람, 취약계층에 부여되어야 하며, 학교가 배움과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되어야 함. 재원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속해야 하며, 모든 정부와 장관들에게 SDG 4 달성과 책무성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 **관찰과 평가**

- 각 회원국 교육 수장들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2030 이행 노력과 책무성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전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교육목표의 이분법적 이행이 아니라, 기존 교육정책에서 연계성을 찾고, SDG 4 목표와 이행과정을 잘 접목하고 있음을 발견함.
- 교육재정 책무성은 국제사회에서의 자원조달(공적개발원조) 뿐만 아니라, 국제 자원 조달 및 교육재원 증대, 재원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사용 증진이 주요한데, 한국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가 있음. 국내 이행과 더불어 교육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우수 경험 사례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의제인 SDG 4-교육 2030 목표와 우리의 국정과제 간에 접목되는 세부사항이 많다고 판단됨. 정부의 국정 과제를 SDG 4와 접목하여 과제를 찾고, 향후 한국의 성과를 국제사회에서 공유한다면 한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

3. 유니트윈/유네스코석좌 25주년 기념 회의

▣ 일시 및 장소

- 10월 31일(화) 15:00~18:00 / 유네스코 본부 Room II

▣ 요지

- 유네스코 유니트윈과 석좌 프로그램의 25주년을 기념하여 200여개 네트워크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 개최
 - 한국은 한동대(유니트윈) 안진원 교수, 석호민 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석좌) 양창열 국제협력팀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귀배 과학문화본부장, 김지현 국제협력팀 선임전문관 참석
-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그를 위한 유네스코 사무국과 국가위원회 역할을 강조

▣ 논의 의제

- 유네스코 유니트윈/석좌 프로그램 25년의 발전과 성과 회고
- SDGs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미래
- 유네스코 석좌 활동 비디오 발표

▣ 주요 내용

- 주요 연사들은 유네스코 유니트윈/석좌 프로그램이 1992년 페데르코 마요르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25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음을 치하하고, 동 프로그램이 교육 2030 및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음을 강조.
 - Mr Qian Tang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는 동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 유엔과의 파트너십,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 인문사회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있었다고 밝힘.
 - Mr Cèsar Gierrero 유네스코멕시코위원회 사무총장보는 동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 국가위원회가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 주목함.
- 아울러 여러 유니트윈/석좌들은 각 기관의 활동을 공유하고, 유네스코 사무국, 국가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소개.
 - Mr Josep M. Vilalta 스페인 UNITWIN Network(글로벌혁신대학네트워크) 대표는 카탈루냐에서 유네스코 석좌를 최초로 개설했음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랍 등의 지역사무소 현황과 세계교육보고서 발간(6권) 등을 공유함.
 - Dr. Gloria Bonder 아르헨티나 FLACSO 여성과학기술 석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석좌

가 없어 다른 석좌와의 네트워크가 쉽지 않으나 사무국의 지원으로 관련 여성관련 16개 석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Mr Pierre Giguère 캐나다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UQAM, ORBICOM 사무총장보는 1994년 설립된 캐나다 내 가장 오래된 석좌로서 국가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디지털격차, 표현의 자유, 미디어 자유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설명.
- Prof. Marc-André Renold 스위스 제네바대학 문화유산보호 국제법 석좌는 문화재 불법거래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강의, 서머스쿨을 진행하며 온라인플랫폼 (Artemis)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에 유네스코 사무국과 스위스 국가위원회의 지원, 석좌 간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Dr. Jacques Zeelan 우간다 Gulu 대학 평생교육 및 청년, 일 석좌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석좌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
-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 참가자들은 석좌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제공과 역량강화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역할, SDGs 이행을 위한 석좌의 기여 확대 등을 언급.
- Mr David Atchoarena 유네스코 평생교육시스템 및 정책과장은 유네스코 사무국과 석좌 간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유네스코라는 라벨이 석좌의 전문성과 탁월성을 의미할 수 있도록 석좌들의 학문적 노력과 SDGs 달성을 위한 기여를 요청함.

4.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역량 장관급 행사

(Dialogue on Global Competencies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일시 및 장소

- 11월 2일(목) 13:00~15:00 / 유네스코 본부 7층 레스토랑

▣ 주관 및 협력기관

- **주관** : 대한민국 교육부, 캐나다 주교육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 : CMEC)
- **협력기관**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Global Affairs Canada

▣ 참석자

• 각국 장(차)관급 36명 등 총 110명 참석

- **(장관급 참석 국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차드, 네덜란드, 지부티, 에콰도르, 가봉, 아이티,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리소토, 말리, 노르웨이, 필리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네갈, 슬로바키아, 탄자니아, 태국, 튀니지, 짐바브웨, 감비아, 니제르, 오만, 우간다, 사모아, 콩고
- **한국**: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우탁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 **캐나다**: Mr Dale Kirby New found land주 교육장관, Mr Sebastien Proulx 퀘벡주 교육장관, Ms Elain Ayotte 주 유네스코캐나다 대사
- **유네스코 사무국**: Mr Qian Tang 교육 사무총장보, 최수향 유네스코 포괄·평화·지속가능 발전국장

▣ 주요 내용

- 동 행사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한-캐나다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주제로 약 2시간여 동안 장관급 30여명과 각국 대사 및 고위급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의가 이루어짐.
- **(환영사)**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세계시민교육이 SDG 4 의제로 포함된 점을 상기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상호 긴밀성과 복잡성이 더해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갈등과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나아가 그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해 교사교육, 교육과정 개정,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지침서 마련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

점을 소개하면서, 동 회의가 각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함.

- 이후 주유네스코 캐나다 대표부 Ms Elaine Ayotte 대사와 유네스코 사무국 Mr Qian Tang 교육 사무총장보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짐.
- **(캐나다 사례발표)** Mr Dale Kirby New found land주 교육장관, Mr Sebastien Proulx 퀘벡주 교육장관은 Global Competency에 관한 캐나다의 경험을 소개함. 특히, 글로벌 역량을 Global Citizenship,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Entrepreneurship, Learning to Learn 등 여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역량 개발을 위해 주별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함.
- **(한국 사례발표)** 교육부 최영한 국제협력관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하여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중요성과 성과를 발표함. 특히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GCED Lead Teachers 프로그램, 국제 교사교류,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4개국(캄보디아, 콜롬비아, 몽골, 우간다) 교육과정 개발 지원, GCED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정보교류센터(GCED Clearing House) 운영 등 한국이 하고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Dialogue Interactions 세션)** Mr John McLaughlin(캐나다 주교육차관) 사회로 진행된 Dialogue Interactions 세션에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주요 발언 내용
 - Ms Katzensteiner Irene(오스트리아 교육여성부)은 한국과 캐나다에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역량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7의 측정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함을 밝힘. 오스트리아는 정부 지원으로 세계시민교육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Ms Benghabrit Remaoun Nouria(알제리 교육부 장관)는 아랍 및 아프리카의 경우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교육(PVE-E)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세계시민교육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가이드와 평가 및 측정 도구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
 - Mr Hang Chuon Naron(캄보디아 교육·청년·스포츠부장관)은 캄보디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가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캄보디아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을 밝힘.
 - Mr Pierre Josue Agenor Cadet(아이티 교육·직업기술부 장관)는 아이티 역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히 이중 언어 사회로서 가지는 언어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밝힘. 세계시민교육을 언어, 역사, 지리교육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Ms Leonor Magtolis Briones(필리핀 교육부 장관)는 필리핀이 2016년부터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등교육과정(K-12)에서 세계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힘. 현재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함.

- Mr JC Muyingo(우간다 고등교육부 장관)는 우간다가 정부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태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음을 밝힘. 특히 우간다로 유입되는 난민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함.
- Mr Sonny S.T. Echono(나이지리아 연방 교육부 차관)는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역량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에 감사를 표하며, 나이지리아가 21세기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21세기 교육과정은 ICT 교육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학생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함양을 도모하여야 함을 강조.
- Mr Joof Batlara A.(감비아 고등교육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정치, 종교, 인종 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리더들의 인식 변화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관찰과 평가

- 금번 회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SDG 4 의제 채택 이후, 폭력적 극단주의 등 글로벌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부각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한국의 활동에 대해 각국 교육부장관 등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네스코 내에서 한국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주도국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최근 글로벌 교육 흐름 중 하나로써 역량(Competency)을 교육의 목표 또는 지표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과거 읽기 및 쓰기 능력에서 최근에는 대화, 협력, 소통 능력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음을 금번 글로벌 역량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VI 한국 대표단 명단 및 주요 활동

1. 참가 목적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 유네스코 회원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 유네스코 각종 사업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제반 동향 파악
- 한국 관심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동 홍보

2. 대표단 명단

• 일반대표(5인)

-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수석대표)
- 이은용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
- 이승훈 청주시장
-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교체대표(5인)

- 배병수 외교부 문화외교심의관
- 강필호 외교부 다자문화관광협력과 외무서기관
- 김원영 외교부 다자문화관광협력과 외무행정관
- 정영수 주유네스코대표부 공사참사관
- 이규성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사무관

• 자문단(32인)

정부부처(8명)

- 이영찬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사관
- 곽한솔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 서기관

- 임소연 주유네스코대표부 2등 서기관
- 이선경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재관
- 한상태 청주시청 고인쇄박물관 서기관
- 이정희 청주시청 고인쇄박물관 주사
- 이승철 청주시청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
- 김한용 청주시청 고인쇄박물관 서기

국가위원회 및 전문가(15명)

-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
- 서현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장
- 송종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학교팀장
- 김은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청년팀장
-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 김민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장
- 정용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팀장
- 김영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선임전문관
-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 선임전문관
- 김소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지코리아팀 연구원
- 박민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외협력실 전문원
-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행정학 교수
- 권현익 캠브리지대학교 사회인류학과 교수

카테고리 II 센터(9명)

- 정우탁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 이양숙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실장
- 김현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실 전문관
- 고베리토 반타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실 전문관
- 김용욱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실 전문관
- 채효석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사무총장
- 임광섭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 연구개발팀장
-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 임준기 아태무형유산센터 기획관리실원

3. 주요 활동

-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 본회의 및 교육·과학·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회의, 행·재정·프로그램·대외협력 분과회의, 법률위원회 등 회의 참석 및 발언
 - ※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사 수석대표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11월 6일)
- 특별회의 참석
 - 리더스포럼, 교육 2030 고위급 회의, 제4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등 참석 및 발언
- 부대 행사 참석
 - 유니트윈/유네스코 석좌 25주년 기념 행사,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역량 고위급 행사 등 참석
- 업무 협의
 - 본부 사무국, 회원국간 및 국가위원회 간 업무협의
- 주요 인사 면담

VII 참고자료

1.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

**National Stat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39th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November 6, 2017)
delivered by Ambassador H.E.Byong Hyun LEE**

Madam President of the General Conference,
Mr Chair of the Executive Board,
Madam Director-General,
Excellencies and Distinguished Delegates,

Let me firstly convey my heartfelt thanks to Mme Irina Bokova, for her dedication and accomplishments over the last eight years of her service for UNESCO. I wish her continued success in her future endeavors.

UNESCO is at a critical juncture in its history. Given the fact that UNESCO is facing institutional and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a time of a crisis.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is could be an opportunity to make UNESCO a stronger organization. As Sir Winston Churchill said,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From the perspective of an optimist, I am convinced that our decisions on the 39C/5 and our new Director General will provide us with new momentum to take a leap forward. This should be matched by corresponding efforts of the Member States. Paying our assessed contributions **in full and on time** is an obligation incumbent on Member States. For UNESCO, to remain as an attractive partner to the world, it should make every endeavor to enhance its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The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been a steadfast partner and will continue our support for UNESCO. Our voluntary contribution to UNESCO has increased by five times during the last 10 years. In 2016, US\$ 12 million was granted as voluntary contribution. Together with financial contribution, we have also provided the secondment of experts to UNESCO Headquarter and Field Offices.

Madam President,

In the area of education, we will continue our support for the UNESCO’s core programmes through Better Life for Girls and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called, “BEAR” which are now extended to 10 African countries. We also fully endorse and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of SDG 4.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in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through peace education. With rising humanitarian crisis and increasing violent extremism today, the role of education to promote peace, human rights and intercultural dialogue is clearly more relevant than ever.

In this context, the World Humanities Forum was jointly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UNESCO in 2011 and ever since the Forum took place biennially. On the basis of their success, the 5th World Humanities Forum will be held in Busan next year, under the theme, 'The Human Image in a Changing World'.

Science is a key to building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established scientific programmes such as IHP, MAB, and Geoparks should be fully optimized as a platform for realizing the SDGs. The Republic of Korea also supports UNESCO's work in ocean including its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are pleased to join its endeavors through a newly launched project to address climate change by supporting water security for developing countries.

Madam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in many ways, including the awarding of the Jikji Priz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We will continue to render our support and play a leading role in enhancing global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

The importance of heritage has been underlin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hether it is tangible, intangible or documentary heritage, we have a noble responsibility to preserve our heritages and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s. In this respect,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47 is a meaningful decision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our common heritage against threats of destruction and trafficking of

cultural heritage. As a co-sponsor to this historica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pledges its support to strengthen the strategy of UNESCO for the protection of culture and the promotion of cultural pluralism.

Lastly,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forthcoming 12th session of the Intangible Heritage Committee will be held from 4 to 9 December this year in Jeju Island. Jeju Island is well known as a UNESCO Multi-internationally Designated Site. I hope every State Party will have a chance to discover why it is so designated.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make this event a great success. Thank you.

2. 관련 기사

06 커버스토리

2017년 12월 유네스코뉴스



11월 13일 유네스코 총회장에서 열린 프랑스 리셉션(French Reception)에서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이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후기

2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는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특히 이번 제39차 총회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의 방향타를 짚을 오드리 아줄레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자리라 국내외 관심이 더욱 컸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김영은 선임전문관이 미국의 탈퇴라는 큰 이슈 그리고 새 사무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뒤섞인 총회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은
국제협력팀 선임전문관

신임 사무총장에 거는 각양각색 기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가 가장 목적이 되는 아마도 2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리는 기간일 것이다. 195개 회원국에서 총회 대표단이 참석하는 총회 기간에는 유네스코 인근 호텔을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다. 제39차 유네스코 총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렸다. 총회 기간 직전인 10월 27일에는 제3차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총회도 있었다. 수석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정책토론(General Policy Debate)과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행정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법률위원회, 지명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세미나, 만찬 등이 총회 기간 동안 이어졌다. 지난 10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선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유네스코지만, 총회 분위기는 어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정성 결과 위원회에서는 미국의 탈퇴로 인해 변화될 예산 지출 계획 상환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 이후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던 터라 탈퇴로 인한 변화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미국의 탈퇴와 관련해 현안

이 되었던 내용이라면, 현 집행이사국인 미국의 탈퇴로 생길 공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 정도일까. 탈퇴 시한을 2018년 말로 설정한 만큼, 각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려진 대로 지난 10월 초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오드리 아줄레 후보는 이번 총회를 통해 유네스코의 열한 번째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연임 기간까지 포함해 8년의 재임 기간을 마치고 물러나는 이리나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11월 1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40대의 이 여성 사무총장에 대해 총회장 안팎에서는 기대와 바람을 담은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다. 회의 중간중간에 지속가는 발전목표(SDGs)와 2030 어젠다 실현, 그리고 유네스코 거버넌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작업에 사무총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발언이 나왔다. 또한 총회 기간 전후로 주요 유럽 국가 대표들은 아줄레 사무총장을 따로 만나 유네스코의 사명

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과 달리 분담금 규모나 국력에 상관 없이 '1 국가 1 투표권'을 지니고 있는 유네스코의 다자주의는 총회에서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의 작은 나라 통가의 발언에 모든 회원국이 귀 기울이고, 세계 유일 슈미퍼워 미국의 발언에 야유를 보낼 수 있는 곳 또한 유네스코다. 물론 이는 함께 평화를 빚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자랑스런 전통인 동시에 유네스코를 이상주의(idealism)에 몰든 비효율적 집단이라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그 아름다운 이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네스코는 조직 내 곳곳이 강대국의 경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일어난 현실이다.

이제 신임 사무총장과 함께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유네스코, 국제적인 이슈와 내부적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은 새 총장과 조직에게 결코 녹록치 않다. 하지만 지난 70여년 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듯, 앞으로 더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회원국 및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내부 개혁도 진행해 나가는 유네스코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유네스코에게 '유네스코다움'이 필요한 때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건물.

이선경 주유네스코 대한민국의대대표부 주재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파견하며, 담당분야 대표부 외교인무수행, 유네스코의 대표부, 한국위원회 간의 연락, 유네스코 활동 동향 및 정보 파악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유네스코 사업 분야의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한다.

첫 번째 유네스코 총회가 열렸던 1946년. 유네스코헌장에 비준한 정식 회원국은 20개 국가였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1950년에는 54개, 북한이 가입한 1974년에는 128개, 그리고 미국이 처음 탈퇴를 선언한 1984년에는 154개로 회원국이 증가했다. 2017년 지금, 유네스코 회원국은 유엔보다 2개 국가가 많은 195개국¹⁾ 70년을 지나며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10배로 늘었다.

1946년 70여 개에 불과했던 전 세계 주권 국가의 수는 지금 200개에 가깝다(Wikipedia, List of sovereign states).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차이의 벽은 더 생기기 마련이고, 공존을 위한 해법은 절실해진다. 그런 이유로 국가들은 유엔에 가입하고, 또 유네스코를 찾는다.

이곳 유네스코는 문해교육에서 언론자유까지, 해양에서 문화유산까지, 스포츠에서 기후변화까지 다채로운 장르가 펼쳐지고 있는 '소프트 외교'의 가장 역동적인 무대다. 국가의 수가 늘어난 만큼, 다뤄야 하는 이슈가 많은 만큼, 유네스코 안 국제관계의 매트릭스는 그 어느 곳보다 복잡하다.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여러 동계 사업들은 나라와 나라를 더욱 선명히 구분 짓게 만들도록서 이러한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재정적 이슈가 자주 얽혀 나타나는 요

즘, 유네스코라는 이름은 위기와 동의어다.

위기의 유네스코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균형 감각이다. 그러나 '현실 속 유네스코'는 기대만큼 강하지 못하다. 유네스코에게 돈 문제는 유네스코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분담금 미납 사태로 미국이 부담하는 정규예산 22%가 갈라나가면서 5년 이상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유네스코. 여기에 미국은 탈퇴의 칼을 꺼내들었고, 일본을 비롯한 60개 가까운 국가들이 분담금을 체납할 상태다²⁾ 지난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한 2년 동안의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25%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네스코의 예산은 회원국이 부담한다. 의무적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거의 반반이다. 분담금은 30개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65개 국가가 10%를 나눠 낸다. 1% 이상 내는 국가는 18개 국가뿐이다. 자발적 기여의 80%는 17개 국가와 8개 기관에서 나온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회원국의 당연한 의무인 분담금이 유네스코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무기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여가 큰 국가의 갑작스런 부재가 기구의 안정성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돈을 많이 내는 소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누구나 믿고 자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신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분담금을 때맞춰 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페널티가 약하다. 돈 앞에 약해지지 않기 위해 유네스코는 자신이 안고 있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의 파이는 늘리고, 분담금 의무는 의무대로 지키게 하고, 기구의 신뢰성은 더 강화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의 힘으로 유네스코가 유네스코다운 균형 감각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1) 유엔 미가입국인 룩셈부르크, 니우에,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회원국이고, 유네스코 미가입국인 리히텐슈타인이 유엔의 회원국이다. 최근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2018년 말까지 회원국 지위가 유지된다.

2) 2017년 11월 9일자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1090달러(미화)에서 많게는 5억 4200만 달러까지 58개 국가가 정규분담금을 체납한 상태다.

3. 사진 자료

개회식



일반정책토론 이병헌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UNESCO_Nora HOUGUENADE

신임 사무총장 임명 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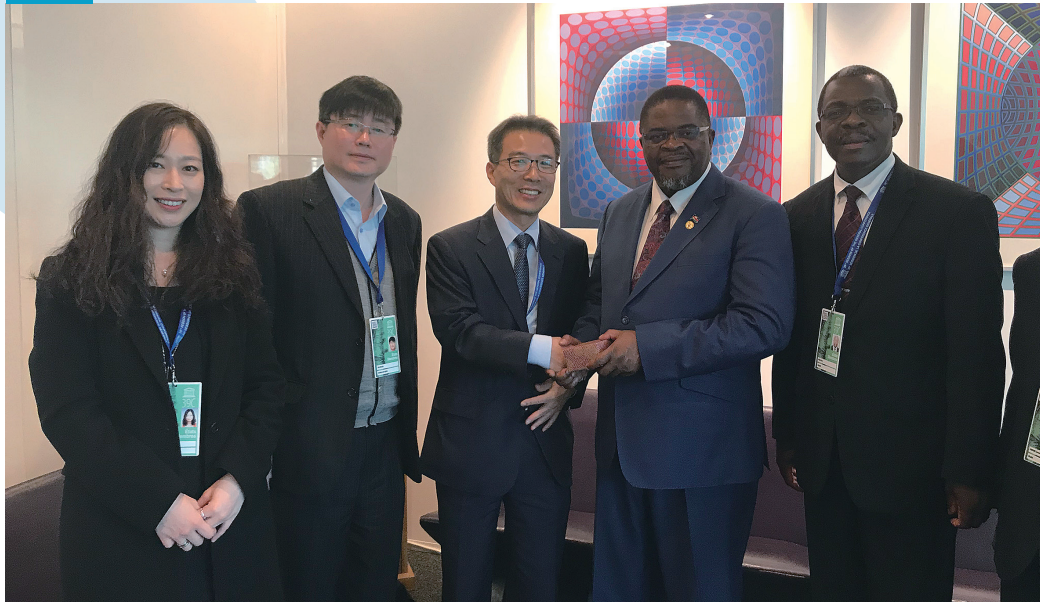
© UNESCO_Christelle ALIX



©UNESCO/N.Houguenade

© UNESCO_Nora HOUGUENADE

말라위 대표단 면담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가운데)과
Msaka 말라위 교육과학기술장관(우측에서 두번째)



유니트원/유네스코석좌 25주년 부대행사



세계시민교육 및 글로벌 역량 장관급 행사



제4차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총회

